

동서양 주변부의 문학자와 세계문학 네트워크* - 정인섭의 덴마크 · 폴란드 · 아일랜드 기행문 및 평론을 중심으로 -

하신애**

1 식민지 조선인의 그랜드 투어(grand tour)

이 글의 목적은 1930년대 정인섭의 유럽 여행을 토대로 발표된 기행문 및 해외문학 평론에 나타난 현지 문인들과의 대담(對談)을 분석함으로써, 정인섭이 주변부 문학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아동·여성·노동자·약소민족 등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보편성의 경로들을 발견했던 과정을 고찰하는

* 본 논문의 초기 아이디어는 University of Edinburgh(UK)에서 개최된 Joint East Asian Studies Conference (2019.9.6.)에서 *Travelogues and Changes of Colonial Korean's Awareness of the Asia-World Relations in 1938-1945*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며, 이후 전면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2022년 2월 상허학회 전국학술대회 <한국 학술·문화사의 주변부를 다시 보다> 집합적 수행성과 제도 안팎의 장소들>에서 발표되었다. 토론 및 심사를 맡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1920-30년대는 세계와의 연계성 차원에서 조선을 쇄신하고자 하는 언설들이 유포되었던 시기였다.¹⁾ 제국 정치로부터 소외된 조선인들은 “인류”라는 보편화된 공동체 의식을 추구했으며²⁾, 1920년대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에 의해 촉발된 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 풍조는 조선인들로 하여금 문화·예술·철학·경제·방면의 활동을 통해, 국가와 변별되는 정체성 및 범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는 근간이 되었다.³⁾ 실제로 1920년대 신문잡지에서는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세계 만유(漫遊)”를 권하는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⁴⁾, 해당 기사들은 해외여행을 통해 개개인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세계 각국의 실상에 비추어 ‘국가 없는’ 민족의 역량을 향상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개별 여정에 나섰던 1930년대 여행자들은 기존과 차별화된 기록들을 선보였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즉 대한제국기나 1910년대의 기행문이 서구 문명의 근대성이라는 ‘표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국가적·위계적 성격을 띠었다면⁵⁾ 다이쇼 데모크라시 이후의 기행문은 개개인의 자율성과 더불어, “미디어를 통한 국제 정보”와 “세계에 대한 지식”을 통해 확보된 “서구와의 동시성”을 기반으로 삼았다. 이는 1930년대의 기행문이 “서구의 근대성에 압도되지 않으며”, “세계에 대한 감각”을 주체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세계 체제하에서 보편적으로 해외와 조선을 사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⁶⁾

-
- 1) 류준필 (2005). 1910-20년대 초 자국학 이념의 형성과정. *대동문화연구*, 52, 40-42; 박승희 (2008). 근대 초기 매체의 세계 인식과 문학사. *한민족어문학*, 53.
 - 2) 권보드래 (2005). 식민지 지식인의 민족과 인류. *정신문화연구*, 제 28권 3호, 313-314, 317-318, 321; 이태훈 (2003). 1920년대 전반기 일제의 ‘문화정치론’과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대응. *역사와 현실*, 47, 3-10 참조.
 - 3) 김현주 (2015). 사회의 발견. 소명출판, 246-247, 252; 松尾尊兌 (2001). 大正デモクラシー. 오석철 옮김 (2011). *다이쇼 데모크라시*. 서울: 소명출판, 314-315.
 - 4) 在英國 朴勝喆 (1925.2.1). 倫敦求景. 개벽, 제56호.
 - 5) 성현경 (2010). 1930년대 해외 기행문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97-99.
 - 6) 성현경 (2012). 1930년대 세계문학담론의 수행적 구조와 해외문학기행의 정치성. *구보학보*, 8, 168-169.

이처럼 국가적 관점이나 문명적 위계 의식을 넘어, 개별 주체의 관점에 입각함으로써 자아 및 공동체의 쇄신을 도모하고자 했던 1930년대 자유여행의 기획은 근대 투어리즘의 궤적과도 겹쳐진다. 서구에서 “자유 의지를 표출하는 자발적 여행”이 등장한 것은 16세기 이후였다. 이는 지리적·경제적 인프라의 발달과 더불어, “(낮선) 장소를 탐색하는 것이 책을 탐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인지했던 관점의 전환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 결과 17-18세기를 거쳐 공공 시찰과 구분되는 학술적·교육적 목적의 그랜드 투어가 유행했으며, 특히 사회적 급변을 따라잡지 못했던 국가 제도를 벗어나 새로운 지식을 선취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자비를 들여 여행을 떠났다. 이처럼 상류층의 그랜드 투어로 대표되었던 자유여행은 19세기 중엽 철도·증기선·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관광 패키지 투어로 대표되는 매스 투어리즘과 연계됨으로써, “모든 지역/모든 사람”을 위한 여행으로 확대되었다.⁷⁾

상술한 바와 같이 국가·제도의 일원론적 매개로부터 벗어나, 근대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 루트의 탐색이라는 측면에서 자유여행의 궤적을 추적하고자 할 때, 1936년 8월-10월에 전개되었던 정인섭의 유럽 여행은 조선 문예를 부흥시키기 위해 매스 투어리즘 시대에 수행된, 피식민자의 그랜드 투어를 선보인다는 측면에서 이채롭다. 정인섭의 여행은 근대 모빌리티 및 미디어를 통해 습득한 국제 정보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는 측면에서 매스 투어리즘의 자장 속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정인섭의 여행은 국가·제도라는 공공성이 와해된 이후, 자아 민족의 미래를 세계라는 “넓은 배움터”에서의 수행을 통해 세련된 형태로 정립해야 한다는 학술적·교육적 목적성을 뚜렷하게 담지했다.⁸⁾ 가령 정인섭의 유럽 여행 전후로 다음과 같은 기록들을 찾을 수 있다.

7) 설혜심 (2020). 그랜드 투어. 서울: 휴머니스트, 26-34. 증기선의 발달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한 세기 전 그랜드 투어의 유행에 따르도록 했고, 미국인에 이어 독일인, 이후 일본인이 이러한 유행에 동참했다고 한다. 설혜심, 위의 책, 270-284; 설혜심 (2010). 그랜드 투어(Grand Tour) vs 매스 투어리즘(Mass Tourism)?, 대구사학, 99, 17.

8) 설혜심 (2020). 32.

해외문학 특히 영문학(英文學)의 권위자인 연희전문학교 교수 정인섭(鄭寅燮) 씨는 (중략) 명(明) 육일 오후 세 시 삼십 분 경성역발 『노소미』로 서백리아(西伯利亞)를 경유하여 구미여행을 출발기로 되었다 한다. 이번 씨의 여행은 구미 각국의 교육계를 주로 시찰할 터이러는데 도중에서 오는 8월 중 정말(丁抹)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언어교육자대회에 출석한 후 조선문학을 구미 각국에 소개하는 동시에 새로운 구미문학 특히 영문학을 한 짐 지고 삼사 개월 후 귀국하실 예정이라 한다.⁹⁾

해외학계를 보고 와서 소감의 일단을 말하여 빈약한 조선학계에 희망의 약간을 표시한다는 것은 극히 필요한 것인줄 짐작한다. (중략) 실효를 연상할 수 있는 점을 몇 가지 추려서 특히 문학 방면에 한해서만 말할려고 한다. (후략)¹⁰⁾

이 사회에도 위대한 예술적 천분이 계승되어 왔다고 한다. (중략) 그러나 애급(埃及)의 상형문자와 만고의 신비 스펡크스 거상이 오늘날 그들 자신들도 이해 못하고 현대적으로 다시 제작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다만 유물로서 위대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어문과 그 예술적 제작 역량이 실제로 훌륭한 현대적 광채를 내지 안홀진대 그 전래의 자부심은 한낱 섭섭한 회고적 하소연에 불과할 것이다. 금강산(金剛山)과 고려소(高麗燒)는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의 예원제 씨는 아직도 세계무대에 충분히 알려지지 아니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연과 인문을 재인식하여야 될 것이며 세계에 널리 보내도 손색 없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¹¹⁾

위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인섭의 유럽 여행은 해외학계와의 교류를 통해 “빈약한 조선학계에 희망을 표시”하기 위한 학술적 실효성 하에 기획된 것이다. 이는 글로벌한 질서 체계에 접속함으로써, 식민지의 한계를 넘어 “세계에 손색없는” 자아/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여정인 것으로 그려진다.¹²⁾

9) 延專 鄭寅燮授 (1936.8.6.) 동아일보

10) 정인섭 (1938.1.4.). 북중구(北中鬪)의 문예계(文藝界) 상(上). 동아일보

11) 정인섭 (1938.1.8.). 북중구(北中鬪)의 문예계(文藝界) 하(下). 동아일보

12) 김향 (2015). 제국 일본의 사상. 창비. 213-215; 하신애 (2018). 아시아 트러블. 서울: 엘피, 70-72.

이때 서구 문예의 탐색은 조선의 “자연과 인문”을 되짚게 하는 근간이 된다. 즉 정인섭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나 고대 로마 극장의 답사를 통해 “금강산 고려소”와 같은 조선 “전래의 자부심”을 새롭게 발견한다. 나아가 해외학계의 경험 및 유적지 답사를 통해 정인섭이 도출하는 학술적 쇄신 방안은, 조선의 고유한 “어문과 예술적 제작 역량”에 “현대적 광채”를 더하여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것으로 요약된다.¹³⁾ 이는 1920년대 정인섭이 식민지 조선의 문예를 “종적 국민 요소와 횡적 세계 요소가 교차한 십자로”에 위치시킴으로써, “명알”을 도모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선보였던 것과 상통한다.¹⁴⁾

실제로 정인섭은 잡지 『해외문학』을 창간하던 1927년에, 조선 사회가 제국을 매개로 서구 문명을 간접 수용했던 제1기 르네상스를 넘어 “일본화된 피상적 문헌으로 만족치 않고 직접 세계 문화를 흡취하고자 하는 타율적 일면과 향토적 독자성을 밝히려는 자율적 운동의 양면이 접촉하는 곳에 목표”를 둔 “제2기 ‘르네상스’”에 진입했다는 점을 기술했다.¹⁵⁾ 이러한 시대적 인식에 입각하여, 정인섭은 해외문학과 중에서도 특히 한글이나 조선 민속 등 “향토적 독자성”의 발굴 및 현대화·세계화에 몰두했다.¹⁶⁾ 정인섭의 이러한 행적은 『해외문학』 창간 이후 해외문학과에게 주어졌던 문단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기도 했다. 당시 평론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해외 문학의 수용과 번역에 있어서 “외국어도 잘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자국어에 관한 이해와 지식이 깊어야” 했다. 또한 “일정한 주견(主見)”을 가지고 “조선 고유의 문화를 연구계승”하는 것과 더불어, “재독삼독”된 전(前) 시대 외국 작품들의 번역을 넘어 최신 문예의 “정수를 뽑아다가 우리의 살과 뼈를 성장시킴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

13) 정인섭 (1938.1.8.). 북중구(北中鬪)의 문예계(文藝界) 하(下).

14) 정인섭 (1959). 가가날과 외국문학 연구(1927). 한국문단논고 신흥출판사, 25-45.

15) 해외문학 좌담화·한글 사용에 대한 외국문학 견지의 고찰 (1927.7.1). 해외문학, 2호, 60-61.

16) 정인섭은 최현배와 더불어 한글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1941)을 마련했으며, 조선의 전설·신화 등을 채록한 민간 설화집 『온도루아와 (溫突夜話)』 (1927)를 일본어로 번역·발간하고 조선민속학회의 잡지 『조선민속』에 <진주 오광대 탈놀음> (1933) 자료를 채록·게재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옥동 (2020). 눈술 정인섭 평전. 울산: UNIST, 131-133, 180-185, 205-210.

토적 독자성”을 어떻게 보편화된 현대성으로 쇄신·전파할지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측면에서 1910-20년대 구미 기행문에 비해 진일보했다. 제4차 국제언어학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인섭이 “한글 음성기호, 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의 문제를 다룬 논문을 영어로 집필한 후 타자본으로 수백 부 준비”했다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²⁰⁾, 정인섭의 여정은 서구 학지(學知)에 대한 추체험(追體驗)을 넘어, 세계 학계와의 조응 하에 조선의 독자적 문화·지식을 발신하고자 했다. 이처럼 세계 학계·문단과의 동시대적 교류를 주요 목적으로 삼은 정인섭의 “학에 순방”²¹⁾은 그랜드 투어가 정치적 위계질서를 넘어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국경을 초월한 통합체”로서 세계를 인지하도록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²²⁾, 동양/서양이라는 경계를 초월한 세계문학 네트워크를 추동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1930년대 정인섭의 유럽 여행을 토대로 발표된 기행문·해외 문학 평론에 나타난 현지 문인들과의 대담(對談)에 초점을 맞추어²³⁾ 정인섭의 세계문학 실천을 고찰하고자 한다.²⁴⁾ 선행 연구들이 정인섭이 속했던 해외

20) 김옥동 (2020). 195-198.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 4차 국제언어학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인섭은 조선민속학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일본인 학자 이마무라 도모(今村鞆)에게 부탁하여 여권을 발급받았다. 소련을 통과하기 위한 비자는 당시 중앙일보사 사장이었던 여운형의 도움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한편 정인섭은 본인의 저축 오백 원에 중등학교 교장 최규동의 보조금 오백 원을 합하여 유럽 여행 여비를 마련했다. 정인섭이 경성역에서 유럽으로 출발할 당시 연희전문 학감 유억겸(俞億兼), 중등학교 교장 최규동(崔奎東), 여운형(呂運亨)의 동생 여운홍(呂運弘), 조선어학회의 이극로(李克魯), 외국문학연구회와 극예술연구회의 동료 서항석(徐恒錫), 이현구(李軒求), 김광섭(金光燮), 김병학(金炳學) 등이 배웅을 나왔다. 요컨대 정인섭의 유럽 여행은 세계문학을 탐색하고자 하는 ‘자유 의지’의 결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학계가 그간 축적해 왔던 역량을 진영 불문하고 집결시킨 성과이기도 했다.

21) 정인섭 (1939.8.) 백림기(白林記). 조광.

22) 설혜심 (2020). 347-350.

23) 정인섭이 여행을 통해 습득한 유럽 각국의 문학에 관한 지식 및 의견들은 평론의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따라서 정인섭이 수행한 유럽 여행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행문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발표된 해외 문학 평론까지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인섭의 기행문 일부를 분석한 사례로는 차혜영 (2015). 대공황 이후 블록경제하의 유럽여행과 서구 시조의 변경. 국제비교한국학, 23권 3호; 차혜영 (2021).

24) 정인섭 (1927). 가가날과 외국문학 연구. 앞의 책 (1959), 25-45.

문학과의 번역 운동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지면 위의 교류’를 통해 “조선문학을 세계 속에서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분석했다면²⁵⁾, 이 글에서는 여행/대담이라는 ‘동시대적 맞대면’에 주목함으로써, 정인섭이 아동·여성·노동자·약소민족 등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보편성의 경로들을 발견하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정인섭의 유럽 여행은 제국주의·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 덴마크·폴란드·아일랜드라는 주변부의 약소민족 국가에 이르러 조선 문예 부흥을 위한 “양분”을 섭취하려는 적극성을 보였다. ²⁶⁾ 이 글에서는 정인섭과 덴마크 평론가 헨닝 켈러(Henning Kehler)·폴란드 여성 소설가 스텔라 올게르드(Stella Olgierd)·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 간의 대담을 통해 주변부 문화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추적할 것이다. 아울러 정인섭의 기행문 및 평론은 1930년대의 세계문학 실천과 1940년대의 정치적 맥락 간 교차에 의거하여 꺾꺾의 층위를 선보였다. 선행 연구가 식민지 말기라는 작성 연대에 주목하여 유흥·소비·정치 등 특정 시기의 맥락을 부각시켰다면²⁷⁾, 이 글에서는 정인섭이 1936년 유럽 여행 당시 표출했던 학술적·교육

25) 김연수 (2011). 조선의 번역운동과 괴테의 ‘세계문학’ 개념 수용에 대한 고찰. 괴테연구, 24; 서은주 (2004). 번역과 문학 장의 내셔널리티. 현대문학의 연구, 24; 조다희 (2012). 해외문화파의 번역극 운동과 번역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대학원 비교문화비교문화협동과정; 조재룡 (2012). 鄭寅燮와 번역의 활동성. 민족문화연구, 57; 조운정 (2009). 번역가의 과제, 글쓰기의 윤리. 반교어문연구, 27, 375-376, 406.

26) 권채린에 따르면 덴마크·폴란드·아일랜드·이집트 등의 “약소 신흥국”은 식민지 조선의 세계상 정립을 위한 참조점으로서 “하나의 분명한 카테고리”를 차지했으며, 조선에서는 “민족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 이들과의 “횡단적 연대”가 시도되었다고 한다. 권채린 (2020). 식민지 대중잡지의 공공성과 ‘조선·구주’의 횡단적 정치학. 우리문화연구, 66, 165, 179-180.

27) 차혜영 (2015); 차혜영 (2021). 차혜영의 연구에서는 정인섭의 “문학기행 기록이 제외”되었으며, 정인섭 자신의 내적 정체성-한글학자, 영문학자, 민속학자, 아동문학자, 평론가, 번역가, 시인, 극문학 연구자, 국제학술대회 조선 대표 및 정인섭이 식민지 시기 전반에 걸쳐 수행해 왔던 세계문학 실천이라는 맥락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차혜영의 연구는 선행 연구의 맥락과 단절되는 한편, 정인섭이라는 해외문학자의 기행문을 ‘자본주의 시대/히틀러 시대 일(-) 개인’의 기행문으로 축소시켰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차혜영의 연구는 정인섭의 여행을 오락문화의 소비에 제한된 것으로 파악하거나 식민지 말기 정인섭의 문필활동 전체를 ‘파시즘에 대한 동조로 소급하여 평가했는데, 자료의 한정성과 고증의 부정확성, 이분법적 관점으로 인한 편향성 측면에서 손색이 있다. 차혜영 (2015). 85. 식민지 시기 해외

적 목적성 및 세계 인식이라는 층위를 새롭게 발굴함으로써²⁸⁾ 식민지가 축적했던 개별적 역량이나 역동성을 부각시키고, 정인섭의 여행 텍스트에 접근하기 위한 경로들을 다채롭게 포착하고자 한다.

2. 조선의 문예부흥과 유럽 소국(小國)의 발견

1930년대에는 해외문학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있어서 1920년대와 차별화된 관점이 도출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1920년대의 해외문학 수용은 “문호(文豪)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대한 창조자’로서 세계 문인들을 부각시켰으며, 특수한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문학 현상을 이해하려는 관점”을 선보였다. 이에 비해 1930년대에는 세계문단 세계문학이라는 용어 하에 개별 민족·국가 단위의 문학이 배치되었으며, 문학을 통해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려는 현실주의적 의도”가 강하게 표출되었다.²⁹⁾ 해외문학을 둘러싼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세계에 대한 식민지 조선인들의 태도를 반영한 결과였다. 즉 전자가 식민지의 후진성을 보상하기 위해 ‘위대한’ 근대 문명의 전범을 추수(追修)하고자 하는 태도의 소산이었다면, 후자는 식민지 조선을 근대적 지식을 갖춘 존재로서 쇄신하고, 서구와의 동시성을 포착함으로써 식민주의가 부여하는 협소한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인 것이다.

이러한 1930년대 조선인들의 관점은 제국에 대한 탈식민 경향과 더불어,

기행문 분석 시 나타날 수 있는 이분법적 연구 방법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손유경 (2008). 나혜석의 구미 만유기에 나타난 여성 산책자의 시선과 지리적 상상력. 민족문학사연구, 36, 171-172, 191 참조.

28) 본 연구는 차혜영의 자료 목록에 기행문 7편, 평론 7편, 좌담회 1편을 추가하여 선행 연구의 협소함을 보완하고, 식민지 해외문학자의 여행 텍스트가 담지한 학술적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1920년대 및 해방 이후 외국 문학 담론과의 연속성을 강화했다. 또한 정인섭의 여행 일정 전체를 전수조사하여 데이터를 도출함으로써 논의의 객관성 및 체계성을 높였다.

29) 서은주 (2005). 1930년대 외국문학 수용의 좌표. 민족문학사연구, 28, 47-49.

“서구를 보편성으로 승인하는 또 다른 식민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태로움을 담지하고 있었다.³⁰⁾ 이에 대해 1930년대 정인섭 및 해외문화파는 서구 자체를 보편성으로서 추인하기보다는 서구의 개별 국가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었는지를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민족적 특수성의 예술적 발현을 통해 성취되는 세계적 지평을 새롭게 모색함으로써 위와 같은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요컨대 예술이 “나라와 나라가 어떤 국경도 가질 수 없는 정신생활”의 극치이고,³¹⁾ “자기에게 없는 것을 타에서 발견함으로써 성취되는 타율적 자기완성”을 위한 것이라면³²⁾, 타(他)의 세밀한 관찰을 경유하여 예술 분야에서 획득되는 쇄신이야말로 식민지인들로 하여금 현재의 “정치형태”와 무관한 곳에서 문화적 “부흥”을 시도하도록 하는 토대가 된다.³³⁾ 1935년 『동아일보』에서는 이처럼 “각국의 범례(範例)”를 “타산(他山)의 석(石)”으로 삼으려는 기획 하에 “건설기의 민족 문화” 특집을 마련함으로써 아일랜드·독일·프랑스·러시아 문학을 차례로 조명하는 바 있으며³⁴⁾, 정인섭의 유럽 여행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되었다.

이처럼 조선 “문예부흥”의 막중한 임무를 띠고 유럽으로 건너온 정인섭의 여행은, 그랜드 투어라는 서구의 전통적인 여행 경로에 일정한 변이를 초래했다. 즉 정인섭의 여행 코스는 영국·프랑스·알프스·스위스·이탈리아·독일·북유럽 및 비(非)서구라는 기존 그랜드 투어의 동선을 반복하는 한편³⁵⁾, 덴마크·폴란드·아일랜드라는 신흥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채를 띤다. 이

30) 서은주 (2005). 52-67.

31) 김진섭 (1935.4.17). 번역과 문화. 조선중앙일보.

32) 정인섭 (1959). 번역예술의 유기적 기능 (1927). 한국문단논고 신흥출판사, 38.

33) 이현구 (1934.11). 세계문화의 정신 탐조, 일의 서론적 수기. 개벽, 신간 1호.

34) 건설기(建設期)의 민족문화(民族問學) (1935.1.3.-3.23.) 동아일보 필진은 김광섭(金光燮, 아일랜드), 이현구(李軒求, 프랑스), 이하운(異河潤, 미국), 서항석(徐恒錫, 독일), 하인리(河仁里=曹喜淳, 러시아)로 구성되었다.

35) 이는 토마스 쿡이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여행사에서 그랜드 투어의 코스를 세계 일주 프로그램으로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설혜심 (2020). 3장, 7장 참조.

러한 행선지의 선택은 세 나라가 1900-1920년대에 걸쳐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여럿 배출함으로써, 문학의 세계적 지평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입각한 것이다.³⁶⁾ 또한 세 나라는 피압박의 역사를 지닌 약소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특성의 보편화를 성취했다는 측면에서 “타산의 석”으로 삼을 만한 위상을 지닌 것으로 회자되었다. 즉 “普壤(프로이센·오스트리아) 양국의 할취(害賦)를 당한 이래 諸 열강국 간에 개재(介在)”하여 “그 국가의 존재까지 인정키 난(難)”했던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³⁷⁾, “데모크라시”의 “신흥소국(新興小國)”으로서³⁸⁾ 전 세계에 어필할 만한 교육법 및 아동문학을 창출했다는 점(덴마크), “생존경쟁의 패배와 그 국어의 미력(微力)”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의 환경과 생활”을 바탕으로 “민족적 색채가 농후”한 작품을 창작하여 “세계적 문호”를 배출했다는 점³⁹⁾(폴란드), “민족의 개성”을 “정복자에 대한 반감”을 표명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세계적 특수로서의 근대문학 건설”로 승화시켰다는 점(아일랜드)을 들 수 있다.⁴⁰⁾ 이러한 연유로, 세 나라는 “독자적인 조선문학의 발달”을 위해 “자가(自家)의 약롱(藥籠)”에 “세계의 영양(營養)”⁴¹⁾을 거두고자 시도되었던 정인섭의 유럽 여행 중에서도 특수한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36) H. 쟁키에비치 (1905, 폴란드), 카를 겔레루프 (1917, 덴마크), H. 폰토피단 (1917, 덴마크),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1923, 아일랜드), 부아디수아프 레이몬트 (1924, 폴란드), 조지 버나드 쇼 (1925, 아일랜드).

37) 金保榮 (1933.1.1.) 丁抹의 國民體育. 삼천리, 제5권 제1호.

38) 中央高普 朴昌夏 (1931.12.27.) 新興 丁抹과 「닐스뵉」 體裁法. 동광 제29호; 정인섭 (1940.8.) 정말 시찰기. 조광.

39) 정인섭 (1926.1.6.) 레이몬트 씨의 장서(長逝)-노벨상 작품 『농민(農民)』에 대하여. 조선일보.

40) 김광섭 (1935.3.6.) 건설기의 민족문학-국민적 신화전설과 원시농민에의 재인지 애란(愛蘭) 일(-). 동아일보.

41) 김광섭 (1935.3.6.).

〈표 1〉 정인섭의 유럽 기행 세부 행선지 및 관련 문헌)⁴²⁾

국가	여행 목적	행선지	관람 장소 및 교류 인물	관련 기행문·평론·좌담회·단행본
폴란드 波蘭	문학 예술 기행, 문인 대담	바르샤바 (Warsaw)	<p>토마스 쿡(Thomas Cook) 여행사, 왕궁(Zamek Królewski), 성 요한 사원(Bazylika archikatedralna św. Jana Chrzciciela), 시엔키에비치(Sienkiewicz) 무덤, 자멘호프(Zamenhof, 에스페란토 창안자) 생가, 코페르니쿠스(Copernicus) 동상, 와이엔키 공원(Lazienki Królewskie), 쇼팽(Chopin) 동상, YMCA, 스카만테르(Skamander) 문예잡지사, 파란미술관(The national museum in wroclaw), 펜-클립, 폴스키 극장(Polski theatre in wroclaw)</p> <p>평론가 센트키위치(sentkiewicz), 여류 소설가 스텔라 올게르드(Stella Olgierd)</p>	<p><기행문> 「파란의 인상」, 『조선일보』, 1939.9.9-13(4회 연재)</p> <p><기행문> 「파란 문단의 프로펠」, 『조광』, 1939.11.</p> <p><평론> 「구미현대작가군(8)·파란이 나온 여류작가 올게르드양과 그의 작품」, 『동아일보』 1938.2.8-2.9(2회 연재)</p> <p><평론> 「동란(動亂)의 구주(歐洲)를 생각함」, 『문장』, 1939.11-12. (2회 연재)</p> <p><평론> 「전란외중 구미문단(4) 남구(南歐)편 삼(三) 전란(戰亂)과 문학(文學)의 장래」, 『동아일보』, 1940.1.9.</p> <p><평론> 「세계의 文人 紀念像 人生은 쩌르그, 藝術은 길다」, 『삼천리』, 1940.3.</p>
핀란드 芬蘭	학술 교류		<p>* 정인섭은 핀란드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으나, 바르샤바 토마스 쿡 여행사의 유럽자동차 안에서 핀란드 청년 2인과의 교류를 통해 ‘핀란드어 알파벳’을 학습</p>	<p><평론> 「芬蘭의 文學」, 『조광』, 1940.2.</p> <p><평론> 「芬蘭의 自然과 文化와 女性」, 『여성』, 1940.3-4. (2회 연재)</p>

42) <표 1>은 정인섭의 여행 일정 전체를 전수조사하여 데이터를 도출한 결과물이다. 선행 연구 중에는 정인섭의 여행이 유흥 위주의 목적을 지녔던 것으로 파악한 사례도 있으나, 표1을 통해 문화예술기행·학술교류·문인대담·유적지 관광이 정인섭의 여정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정인섭이 유럽 각국의 지식인·문화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의 세부 행선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인섭의 기행문에는 유럽 각국의 문인 생가·무덤·박물관·미술관·극장·건축물·예술품들에 대한 견문과 감상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정인섭의 여행 경험을 토대로 발표된 평론에서는 해외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인섭의 학술적 견해가 드러난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한 자료는 굵은 글씨로 표시했다. 관람 장소는 이동 순서에 따라 표기되었다. 외국 지명 및 인명의 경우 원문에 알파벳이 기록되어 있거나, 현재 원어명을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병기했다. 차혜영 (2015). 85, 91.

			한 기록을 남겼음. 헬싱키 은행원 세실 W 아베기르스드	
독일 獨逸	문학 기행, 학술 교류, 관광	베를린 (Berlin)	브란덴부르크 문 (Brandenburg Gate), 차가르텐 (Tiergarten) 공원, 일본 대사 관, 일본 총영사관, 일본인 회관, 황빈정금 은행지점, 페미나 카마레, 운터 덴 린 덴(Unter den Linden) 박물관, 국민미술관, 베를린 대학 (Universität zu Berlin), 레싱 (Lessing) 극장, 베르트하임 (Wertheim) 백화점 베를린 대학 중국학과 주 임 교수 트리들, 영문부 주임교수 실머	<기행문> 「백림기(白林 記)」, 『조광』, 1939.8. <평론> 『歐州大戰과 戰 爭文學』, 『동아일보』, 1939.9.19., 23, 26(3회 연재)
		바이마르 (Weimar)	괴테 생가(Goethe-Haus), 실 러 생가(Schillerhouse)	<기행문> 「와이마르 기 행.『괴테』의 집을 찾아 서」, 『문장』, 1940.5. <평론> 「북중구(北中歐) 의 문예계(文藝界)」, 『동 아일보』, 1938.1.4.-1.8(2회 연재) <평론> 「세계의 文人 紀 念像 人生은 찌르고, 藝 術은 길다」, 『삼천리』, 1940.3.
덴마크 丁抹	국제 학술 대회 발표, 학술 교류, 문인 대담, 문학 기행	코펜하겐 (Kobenhavn)	코펜하겐 대학(Kobenhavns Universite), 로센브르그 공 원(Rosenborg Slot Park), 안 데르센 동상, 일본영사관, 국립고등여학교, 시칭, 미 켈브리크 가 대극장, 왕립 극장(Det Kongelige Teater), 덴마크 시인 호르베르히 (Holberg)/오크렌슈레크르 (Oehlenschläger) 동상, 박물관 (Nationalmuseet), 프레데릭 스보르그 고성 (Frederiksberg Slot), 베를링 그스케 티덴테(Berligske	<기행문> 「정말 시찰기」, 『조광』, 1940.7. 8(2회 연재) <기행문> 「자전거 나라 정말」, 『동아일보』, 1940. 4.11. <기행문> 「정말 점묘」, 『동아일보』, 1940.4.13.-16 (3회 연재) <기행문> 「노르웨이와 덴마크」, 『매일신보』, 1942.2.24.-3.2. <평론> 「북중구(北中歐) 의 문예계(文藝界)」, 『동 아일보』, 1938.1.4.-1.8(2회

			<p>Tidende) 신문사</p> <p>덴마크 왕 크리스티안 10세(Christian X)</p> <p>코펜하겐 대학 교수, 국제 언어학자대회 회장 오토 에스퍼슨(Otto Jespersen, 언어학·영어학 전공, 국제음성학회 회원)</p> <p>코펜하겐 대학 교수 브뤼넬 노르웨이 오슬로 학자 슝 메르페르트(Alf Sommerfelt)</p> <p>노르웨이 옘살 대학 교수 룬델(J.A. Lundell), 자흐리손(R.E.Zachrisson)</p> <p>오스트리아 빈 대학교수 트루베츠크코이(Nicolas Troubetzkoy, 언어학 전공)</p> <p>독일 폰 대학 교수 폴 멘제라트(Paul menzerath, 언어학 전공)</p> <p>덴마크 국립 고등여학교 교장 아우구스트 레르헤(August Lerche)</p> <p>미국 하버드대 인도 유럽어부 교수 죠와 핫마우(Josha Whatmough)</p> <p>스위스 룬드대학 이바 린드퀴스트(Ivar Lindquist)</p> <p>스위스 여류문사 엘리자베스 하엠(Elizabeth Hayem)</p> <p>영국 리즈(Leeds) 대학교수 엠 앨런 에스 시 로스(Ross)</p> <p>파리 대학 엠 안리 마스페로(M.Henri Maspero)</p> <p>월로 대학 엠 얀 사파레위츠(Sabarewicz)</p> <p>평론가 헤닝 켈러(Henning Kehler)</p>	
		엘시노어(Helsingør)	크론브르그 고성(Kronborg Castle), 햄릿 무덤	
영국-잉글랜드	학술 교류,	런던(London)	YMCA, 대니얼 존스 사택, 런던대학(University of	연재 <평론> 「세계의 文人 紀念像 人生은 찌르고, 藝術은 길다」, 『삼천리』, 1940.3. <기행문> 「영국문단순례」, 『조광』, 1938.5.

英國	문학 기행		London), 트라팔가 광장 (Trafalgar Square),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웨스트민스터 사원(Westerminster Abbey), 영국 작가 클럽 런던대 교수 대니얼 존스 (Daniel Jones, 국제음성학회 회원) 영국 작가클럽 간부/사회 평론가 프랜시스 그립블 (Francis Gribble)	<기행문> 「광한루(廣寒樓)와 춘향각(春香閣)」, 『삼천리』, 1941.3.1. <기행문> 「英國의 湖畔地方 詩人들의 史蹟을 찾아서」, 『새교육』 1권 2호, 1948.9.15. <기행문> 「스트렐포드. 온-에이번에서」(「세익스피어」의 故鄉을 찾아), 『조선교육』 통권 13호, 제2권 제6호, 1948.10. <기행문> 「스트렐포드. 온-에이번에서」(「세익스피어」의 生家를 찾아), 『조선교육』, 1948.12. <기행문> 「倫敦見聞記」, 『조선교육』, 1949.2, 4, 5월(3회 연재) <평론> 「북중구(北中鬪)의 문예계(文藝界)」, 『동아일보』, 1938.1.4-1.8(2회 연재) <평론> 「세계의 文人 紀念像 人生은 찌르고, 藝術은 길다」, 『삼천리』, 1940.3. <평론> 「영국문화의 위기」, 『매일신보』, 1942.2.24-.3.3(6회 연재)
		버밍엄 (Birmingham)	경유	
		레이크 디스트릭트 (Lake District)	프라이어즈 크랙, 존 라스킨(John Ruskin) 비석, 도브 코티지(Dove Cottage), 워즈워스 박물관(Wordsworth Museum), 성 오스왈드 교회당(St. Oswald's Church), 워즈워스 무덤, 냅 코티지, 윈더미어 호수(Lake Windermere)	
		스트랫퍼드-어폰-에이번 (Stratford-upon-Avon.)	세익스피어 박물관, 세익스피어 기념극장, 홀리 트리니티 처치(The Holy Trinity Church), 세익스피어 무덤, 묘지, 에이번 강변	
		옥스퍼드 (Oxford)	옥스퍼드 대학(University of Oxford) 정치학 연구자 이활(李活, 1907-1986)	
아일랜드 愛蘭	문학 기행, 문인 대담	더블린 (Dublin)	더블린 대학(University College Dublin), 토마스 무어(Thomas Moore) 동상, 골드스미스(Oliver Goldsmith) 동상, 애란 은행, 오코넬	<기행문> 「애란문단방문기」, 『삼천리』, 1938.1, 4(2회 연재) <기행문> 「愛蘭紀行, 大西양 건너 故鄉으로」,

			교(O'Connell Bridge), 더블린 성당(St. Patrick's Cathedral), 센트럴 모델 스쿨(Central model school), 애비 극장(Abbey Theatre), 에이츠 사택, 토마스 무어 생가, 더블린 성(Dublin Castle), YMCA 센트럴 모델 스쿨 교장 지티 패트릭 안 바틀러 에이츠(Anne Butler Yeats) 에이츠(Yeats) 부인 시인 윌리엄 바틀러 에이츠(William Butler Yeats) 극작가 로빈슨(Lennox Robinson)	『삼천리』, 1938.10.
영국-아일랜드		벨파스트(Belfast)	토마스 쿡 여행사, 박물관, 식물원(Botanic Gardens), 벨뷰 공원(Belvoir Forest Park), 서점, 기선 사무소, 오턴 파레스 영화관	
영국-스코틀랜드 蘇格蘭	문학 기행	글래스고(Glasgow)	정거장 경유	<평론> 『북중구(北中毆)의 문예계(文藝界)』, 『동아일보』, 1938.1.4.-1.8(2회 연재)
		에든버러(Edinburgh)	윌터 스콧 기념탑(Scott Monument), 스티븐슨(Robert Louis Stevenson) 박물관, 에든버러 성(Edinburgh Castle), 프란시스 공원, 애덤 스미스 무덤(Adam Smith's Grave), 번즈 기념비(Burns Monument)	
프랑스 佛蘭西	문학 예술 기행, 관광	파리(Paris)	뤽상부르 공원(Luxembourg Gardens), 판테온(Panthéon), 루소(Jean Jacques Rousseau) 기념상, 볼테르(Voltaire) 무덤, 빅토르 위고(Victor Hugo) 무덤, 에밀 졸라(Emile Zola) 무덤, 소르본 대학(Sorbonne University), 클뤼니 박물관(Musée de Cluny), 노트르담 사원	<기행문> 『파리의 추억』, 『조광』, 1940.3, 4, 5(3회 연재) <기행문> 『바리』 『奈巴倫墓』 參拜記, 凱旋門을 지나 偉人의 무덤을 찾다, 『삼천리』, 1940.10. <평론> 『歐洲大戰과 戰爭文學』, 『동아일보』, 1939.9.19, 23, 26(3회 연재)

			<p>(Cathédrale Notre-Dame), 센강변(Banks of the Seine), 나폴레옹 무덤(Napoleon's Tomb), 베르사유 궁전(Chateau de Versailles), 루브르 박물관(Louvre Museum), 콩코르드 광장(Place de la Concorde), 샹젤리제(Champs-Elysees), 개선문(triumphal arch), 그랜드 오페라 극장(Grand Opera House), 카페</p> <p>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駐) 프랑스 통신원 서영해(徐嶺海, 1902-1949)</p>	<p><평론> 「동란(動亂)의 구주(歐洲)를 생각함」, 『문장』, 1939.11-12. (2회 연재) <평론> 「세계의 文人 紀念像 人生은 찌르고, 藝術은 길다」, 『삼천리』, 1940.3. <좌담회> 「伯林, 巴里, 白耳義의 戰火 속에서 최근 귀국한 兩氏의 報告記」, 『삼천리』, 1940.12.</p>
스위스 瑞西	관광	제네바 (Geneva)	<p>페리두락 공원(Parc de La Perle du Lac Geneva), 라리아나 공원(Parc de l'Ariana), 데조비브 대공원(Parc des Eaux Vives), 루소(Jean Jacques Rousseau) 기념상, 마카베 성당(Chapel of the Maccabees), 제네바 대학(University of Geneva), 느브 광장(Place Neuve), 오페라 극장, 빅토리아 음악당(Victoria Hall), 아폴로 극장,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여행사(American Express Company), 실론 성(Château de Chillon), 알프스(Alps)</p>	<p><기행문> 「서서의 자연과 인문」, 『조광』, 1940.9. <평론> 「세계의 文人 紀念像 人生은 찌르고, 藝術은 길다」, 『삼천리』, 1940.3.</p>
이탈리아 伊太利	관광	밀라노 (Milan)	<p>스칼라 극장(Teatro La Scala),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동상, 두모오 광장(Piazza del Duomo)</p>	<p><기행문> 「이태리 방문기」, 『조광』, 1940.11. <기행문> 「라마(羅馬)의 인상」, 『조광』, 1940.12. <기행문> 「폼페이의 감상」, 『조광』, 1941.1.</p>
		로마 (Rome)	<p>바르베리니 광장(Piazza Barberini), 토마스 쿡 여행사, 바티칸(Vatican City) 교황청(Curia Romana), 테베레강변(Bords du Tibre), 안젤로 성(Le château Saint-Ange)</p>	<p><평론> 「歐州大戰과 戰爭文學」, 『동아일보』, 1939.9.19., 23, 26(3회 연재) <평론> 「전란외중 구미문단(4) 남구(南歐)편 삼(三) 전란(戰亂)과 문학</p>

			<p>et le Tibre.), 성 페테로 사원(Basilica di San Pietro), 판테온(Pantheon), 베네치아 광장(Piazza Venezia), 에마누엘 2세 기념궁전(Monumento di Vittorio Emmanuele), 포룸 고적(Forum Romanum), 콜로세움(Colosseum), 치르코 마시모 광장(Circo Massimo), 카라칼라 고대 욕장 폐허(Baths of Caracalla), 파올로 성문(La porte San Paolo), 키츠(John Keats) 무덤</p>	<p>(文學)의 장래, 『동아일보』, 1940.1.9.</p>
		<p>나폴리(Naples)</p> <p>가리발디 광장(John Keats), 폼페이 유적(Pompeii)</p>		
<p>그리스 希臘</p>	<p>관광, 서양 문명 발원지 탐색</p>	<p>아테네(Athens)</p>	<p>아크로폴리스 언덕(Acropolis), 파르테논 신전(Parthenon), 디오니소스 극장(Theater of Dionysos), 테세온 신전(Thetheon), 스타디움(Athens Olympic Stadium)</p> <p>아테네 대학(National and Kapodistriar University of Athens) 건축과 교수</p>	<p><평론> 『북중구(北中歐)의 문예계(文藝界)』, 『동아일보』, 1938.1.4.-1.8(2회 연재)</p> <p><평론> 『전란외중 구미 문단(4) 남구(南歐)편 삼(三) 전란(戰亂)과 문학(文學)의 장래』, 『동아일보』, 1940.1.9.</p> <p><평론> 『세계의 文人 紀念像 人生은 찌르고, 藝術은 길다』, 『삼천리』, 1940.3.</p>
<p>이집트 埃及</p>	<p>관광, 비서구 세계 탐색</p>	<p>알렉산드리아(Alexandria)</p> <p>카이로(Cairo)</p>	<p>구시가지</p> <p>이집트 박물관(Egyptian Museum), 에즈베키예 공원(Ezbekiyya Gardens), 시타델 고성(Cairo Citadel), 기자 피라미드(Giza Pyramid), 스�핑크스(Sphinx), 포트 사이드 항(Port Said), 수에즈 운하(Suez Canal)</p>	<p><기행문> 『구라과 여행기-에급의 여수』, 『사해공론』, 1937.1.</p> <p><기행문> 『스핑크스 : 文士諸氏의 片言集』, 『조광』, 1938.10.</p> <p><평론> 『세계의 文人 紀念像 人生은 찌르고, 藝術은 길다』, 『삼천리』, 1940.3.</p> <p><단행본> 『눈술 정인섭 박사 제6 수필집. 이렇게 살다가』, 가리온, 1982.44)</p>

유럽 여행 당시 정인섭이 방문했던 국가들은 크게 세 범주로 분류된다. 즉 1)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라는 제국주의·전체주의 강대국들, 2) 덴마크·폴란드·아일랜드·스위스·(핀란드)라는 주변부의 소국(小國)들⁴⁵⁾, 3) 그리스·이집트라는 비(非)서구와의 접이지대 국가들이다. 이때 정인섭의 여행 방식이나 서술 태도는 각각의 범주에 따른 차이를 드러낸다. 1)의 경우 세계적 문호·예술가의 발자취를 좇는 문학예술 기행 및 유적지 관광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려는 식민지 조선인의 “현실주의적 의도”가 표출되었다.⁴⁶⁾ 2)의 경우 현지 평론가 소설가 시인과의 대담을 시도함으로써, 조선의 문예부흥을 위해 “세계의 영양(營養)”⁴⁷⁾을 흡수하고자 하는 네트워킹의 면모가 두드러졌다. 3)의 경우 유적지 관광을 통해 문명의 흥망성쇠에 대해 성찰하는 한편, 1930년대 중후반의 인종 질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시화했다.

제국주의·전체주의 강대국에서, 정인섭은 괴테·실러·워즈워스·셰익스피어·빅토르 위고·에밀 졸라·다빈치 등 세계적 문호·예술가에 대한 문학예술 기행을 주로 선보였다. 독일 바이마르에서 쓴 정인섭의 시에서 볼 수 있듯이, 문학예술 기행을 통해 일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세아 대륙을 횡단”하여 “책에서 읽고 동무했던” 서양 문학자의 자취와 맞닿을 수 있게 된 동양인의 감격이다. 이는 머릿속에서 “웨르테르와 로테가 무선전신선(無線電信線)으로

43) 『세계문학산고』는 “세계문단 주조론”에 대한 개론서로 편찬된 것이며, 정인섭의 유럽 기행문 및 해외문학 평론 대부분이 수록되었다. 『비소리 바람소리』에는 「世界的 文人 紀念像 人生은 찌르고 藝術은 길다」를 비롯한 평론들이 수록되었다. 『산 넘고 물 건너』에는 정인섭의 세계 기행문에 삽입되었던 여행시들이 일괄 수록되었다. 식민지 시기에 발표되었던 기행문, 평론 및 창작시들이 1960년대 단행본으로 출간되기 위해서는 식민체제의 종식·한글 맞춤법의 변화·단행본 출판 목적·1960년대의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른 수정을 거쳐야 했는데, 이러한 개작 과정은 차후 꼼꼼한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 연구될 필요가 있다.

44) 『이렇게 살다가』에는 「스핑크스 : 文士諸氏의片言集」을 비롯한 이집트 기행문이 수록되었다.

45) 이 중에서 스위스는 알프스를 넘기 위한 중간 기착지이자 짧은 관광의 경험만이 기록되어 있고, 핀란드는 실제로 방문하지 않았기에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46) 서은주 (2005). 47-49.

47) 김광섭 (1935.3.6.).

거미줄을 친다”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서구와의 동시적 조응을 통해 문학 예술의 네트워크에 “지구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된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자긍(自矜) 및 문학예술의 영속성에 대한 신뢰감의 표출로써 마무리된다.

내 일즉이 『괴테』를 읽고/ 또한 『실레르』를 책에서 동모했더니/이제 나는 그들의 자취를 더듬는다/한 곳, 한 동상(銅像) 밑, 그리고 한날에-/아세아 대륙(亞細亞大陸)을 횡단(橫斷)한 내 발자욱이/지금 『와이말』의 석양(夕陽)을 밟고 있다./ 내 머리에는 『웨르테르』와 『로테』가 무선전신선(無線電信線)으로 거미줄을 치고.../『노(老)파우스트』는 다시 청춘이 되어/『메피스트』와 공중으로 비약(飛躍)하였다./ (중략) 역사(歷史)는 바뀌고 사람은 나서 죽어도 / 두 사람의 자기(磁氣)는 지구(地球)를 자꼬 돈다.⁴⁸⁾

또한 정인섭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마주한 “미로의 비너스”,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같은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은 “구미(歐米) 여성들의 이상형(理想型)”으로부터 한발 더 나아가 “누나와 어머니”와 같이 국경을 넘어선 친밀감으로 표현되며, “누구든지 머리를 숙이지 아니할 수 없는” 예술의 보편성에 대한 환기로 이어진다.

수많은 조각과 회화 가운데 특히 인상 깊은 것을 몇 가지만 적기로 하자. (중략) 『미로』의 『비너스』는 우편(右便)으로 조금 재료(材料)진듯한 반나체(半裸體)로서 (중략) 미(美)의 여신(女神)의 그 존귀(尊貴)하고 미려(美麗)한 곡선미를 보이고 있어 희랍조각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다. 전신의 조화(調和) 숭고(崇高)한 기품 풍만(豐滿)한 육체미(肉體美)는 구미 여성들의 이상형이다. (중략)

다음에 『그란드가르리』를 들어가면 거기에는 『르네상스』 이후의 각국 대가들의 것이 있는데 내 눈에 유달리 빛나는 것은 저 유명한 『다빈치』 작의 『모나리자』이었다. 폭(幅)이나 고(高)가 그리 넓고 큰 것은 아니나 그 영원한 정숙(貞淑)과 자애(慈愛)의 초상에는 누구든지 머리를 수기(수기)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정색(正色)한 듯 하되 미소(媚笑)하는 듯하고 누나와 어머니를

48) 정인섭 (1940.5.) 『괴테』와 『실레르』 전문. 와이마르 기행 『괴테』의 집을 찾아서. 문장.

한거변에 한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듯한 그 침착하고도 암시적인 표정 (중략) 나는 다빈치가 어떤 수도자의 부인에게서 느낀 그 예술적 영상(映像)을 이 원화(原畵)에서 내 눈앞에 상상해 보았다. 사진이나 책에서나, 그림에서 모든 것과는 정말 다른 무궁(無窮)한 실감에 황홀되는 것 같았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원화의 가치란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49)

위와 같은 문학예술의 동시성·보편성에 대한 환기는 식민지 시기 세계문학 담론에 내재되었던 “특정 국가나 정치, 제도로 귀속되지 않는 문학의 본질로부터 세계성으로의 도약을 구상”하고자 하는 “방법론적 인식”이 전제된 것이다.⁵⁰⁾ 즉 “역사가 바뀌고 사람이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문학예술의 이상 조화·승고야말로, 식민지인들로 하여금 “공중으로 비약”하여 정치형태와 무관한 곳에서 “무궁(無窮)함”을 실감하도록 하는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유럽 강대국들을 여행하던 정인섭은 아시아/식민지인의 경계를 넘어선 자아에 대한 감격과 더불어, 제국주의·전체주의라는 정치체제 하에서 동양인/피식민자가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이질감·불쾌감과 대면한다.

1) 미술관 속에서 원화를 모사하도록 허락해 둔 불란서 당국의 심정에 감격 아니할 수가 없었다. 동양에서는 보잘것없는 미술전시회에서라도 관람자가 사진기계는 물론 실내에서 연필이나 만년필을 사용 못하게 하고 행어나 원화에 손상을 줄까 심려해서 지팡이나 양산같은 것 같이 억지로 막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세계가 전연(全然) 다른 것 같이 생각되었다. 나는 한 참동안이나 그 원화 앞에서 멀리 갔다가 가까이 왔다가..(중략) 눈을 많이 떴다가 오무렸다가 또는 위치를 이리저리 변해가면서 모나리자를 느껴보았다. 경성의 어딘가 다방(茶房) 일흔이 『モナリザ』라고 붙어있었기에 나는 이 원화에 감격(感激)하든 추억을 새롭히려고 가끔 그 다방을 찾아간 일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파리 루브박물관 원화 앞에서 무한히 느끼든 모나리자를 이 다방에서 느낄수 있을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맞기저니와..(후략)⁵¹⁾

49) 정인섭 (1940.5.) 파리의 추억 삼(三). 조광.

50) 성현경 (2012). 152.

2) 중간 어느 역에선지 이태리 군대(軍隊)들이 내가 탄 차간에 올랐는데 나를 보고 여러 가지 말을 건다. 「어디서 왔느냐?」라던지 「지나인이나? 일본인이나?」라느니 「어디로 가느냐?」라느니 이렇게 묻기에 일일이 대답을 했다. 그중의 하나가 「애인이 있느냐?」하고는 빙그레 웃는다. 또 한 명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사나이와 사나이가 OOOOO?」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멍하고 있으니깐 옆에 있는 다른 병정의 허리를 뒤에서 안고 괴상한 수작을 모방(模倣)한다. 그러니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병정들이 일제히 요절(腰切)하게 웃는다. 나는 성낸 표정을 하고 창밖 암흑(暗黑)을 바라보고 있었다. 급행차를 놓친 것도 속상한 데다가 한밤중에 이런 조롱(嘲弄)을 당한다는 것은 심(甚)히 불쾌(不快)한 일이었다. (중략) 나는 그 이상 그들을 책(責)할려고도 아니하고 묵묵(默默)히 앉아있었다.⁵²⁾

인용문 1)에서, 다빈치 작 『모나리자』에 “황홀”되어 스스로를 “파리인(巴里人)”으로 칭하던 정인섭은 루브르 박물관과 대비되는 식민지 경성의 미술 전시회 및 다방 『モナリザ』를 떠올리고, “동양의 보잘것없음”을 인지한 후 “세계가 전연(全然) 다른 것 같다”고 기술한다. 『모나리자』와 『モナリザ』 사이에는 동서양의 위계 및 미술 전시를 둘러싼 프랑스와 식민지 총독부 간의 차이가 틈입해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의 이상·조화·승고와 접속함으로써 세계성을 향해 도약하던 정인섭을 현실 사회의 정치적 간극 속으로 미끄러뜨린다.

이처럼 “세계가 다른 것 같은” 이질감은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여행 내내 정인섭을 엄습한다. 실제로 영국으로 향하는 열차 안이나 파리 상젤리제에서, 정인섭은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마음의 불안”이나 “고독감”을 종종 표출한다.⁵³⁾ 또한 인용문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탈리아의 전체주의 질서 속에서 “동양인 여객” 정인섭은 그 이질성으로 인해 군인들에게 조롱당하는데, 이에 대응하는 정인섭의 방식은 눈앞의 “암흑”을 직시한 채 “묵묵히 앉아” 사태를 관찰하는 것뿐이었다. 이는 유럽 강대국들이 “수천 년간 축적해 왔던 문

51) 정인섭 (1940.5.) 파리의 추억 삼(三).

52) 정인섭 (1940.11.) 이태리방문기. 조광.

53) 정인섭 (1938.5) 영국문단순례기. 조광; 정인섭 (1940.5.) 파리의 추억 삼(三). 조광.

화와 예술’의 “잇을 수 없는 장대함”에도 불구하고⁵⁴⁾, 정인섭이 이들 국가가 표방하는 보편성에 전적으로 귀의하지 못한 채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의 정세를 예측하려는 동양/피식민자의 “현실주의적 의도”로 옮겨가는 원인이 되었다.⁵⁵⁾ 즉 유럽 곳곳에서 “파시스트의 행렬”이나 “히틀러의 날카로운 시선”⁵⁶⁾이 포착되었던 정황을 두고, 정인섭은 “바티칸 궁의 성 페트로 사원의 종소리가 울리면서 무솔리니의 전투행위를 놀릴려고 하더라도 현실적 정세는 파시즘적 호전 심리를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정치적 전망을 제시한다.⁵⁷⁾ 다른 한편으로 정인섭은 “오늘의 이태리 문학은 옛날 로마문학이 세계의 문학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것과 같은 그런 공적을 이루지 못한 것은 사실인데, 파시즘 문학이란 것이 아직은 그 정치적 행동우선적 관심을 두기 때문에 문학 자체로서의 성과는 장래에 기대되는 바”이며, “전란 중에 일시로 생긴 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 것이 보통”이니 “우리는 전란의 정세와 한가지로 이제부터 구주문학의 장래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문학예술의 독자성을 환기시키려는 면모를 보인다.⁵⁸⁾

이처럼 제국주의·전체주의 강대국에서 소외를 겪는 한편 현실주의적 판단

54) 정인섭 (1940.5.) 파리의 추억 삼(三).

55) 서은주 (2005). 47-49쪽. 정인섭 (1940.12.) 라마(羅馬)의 인상. 조광: 선행 연구는 「라마(羅馬)의 인상」에서 “3천 년 전의 라마 문명이 고적 가운데 옛 영화를 자랑하고 이제 젊은 세대의 혼란이 이다지도 강화될 때에는 이태리의 장래는 또한 낙관되는 점이 있는 것 같다”는 구절을 들어 정인섭이 무솔리니 파시스트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의 인용문에서는 원문의 바로 앞 구절이 삭제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내가 서서에서 이태리 국경을 넘어 올 때, 기차간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밀라노 밤거리에서 저급한 노리감이 많이 매매되는 것을 기억하고, 라마로 오는 기차 안에서 병정들에게 조롱당한 것들을 생각하니, 아직도 어딘가 이태리인들의 교양이 부족한 것 같고 북구 문명국에 비해서 전체로 수준이 좀 떨어지는 느낌을 갖는 것이다.” 앞뒤 맥락을 고려할 때, 이탈리아 파시즘에 대한 정인섭의 시선은 기대나 응원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이며 냉정한 분석에 가깝다. 차혜영 (2021). 453-454.

56) 정인섭 (1940.4.) 파리의 추억 이(二). 조광.

57) 정인섭 (1940.1.9.) 전란외중 구미문단(4) 남구(南歐)편 삼(三) 전란(戰亂)과 문학(文學)의 장래. 동아일보.

58) 정인섭 (1940.12.) 라마(羅馬)의 인상; 정인섭 (1940.1.9.) 전란외중 구미문단(4) 남구(南歐)편 삼(三) 전란(戰亂)과 문학(文學)의 장래.

을 선보였던 정인섭은, 유럽의 소국(小國)에 이르러 식민지 조선과 유사한 위치성을 지닌 주변부 민족들을 발견한다. 즉 피압박의 역사를 지닌 덴마크·폴란드·아일랜드에 이르러 정인섭은 “자가(自家)의 약룡(藥籠)”에 “세계의 영양(營養)”⁵⁹⁾을 거두고자 했던 당초 여행 목적에 걸맞게, 현지 문화자들과 언어적 소통을 시도하고 조선의 독자적 문화 지식을 발신하며, 아동·여성·노동자·약소민족 등의 범주를 통해 동서양에 국한되지 않는 문화적 동질감을 확보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해당 국가의 문예를 식민지 조선의 참조점으로 삼고자 하는 평론가·여성 소설가·시인과의 대담으로 이어진다.

덴마크는 “일천 년 전에는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까지 점령했던 일대 강국이었으나” 지금은 “조선보담 훨씬 작은 소국(小國)”인 것으로 제시된다.⁶⁰⁾ 정인섭은 “열강국의 압박을 받았던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⁶¹⁾ “문명국”으로 자리매김하여 “농업, 학술, 체육 방면에서 배울 점이 많은” 덴마크의 현재를 조명하는 것으로 기행문을 시작한다.⁶²⁾ 정인섭이 덴마크를 방문한 주된 이유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4차 국제언어학자대회에서 ‘한글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제4차 국제언어학자대회가 덴마크에서 개최된 이유는 국제음성학회 회원이자 국제언어학자대회 회장인 오토 예스퍼슨(Otto Jespersen)이 코펜하겐 대학에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정인섭은 덴마크에 “예스페르센 교수 같은 세계적 영어학자가 있어서 영어교육에 근대적 혁명을 일으켰”으며, 코펜하겐 대학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진을 갖추고”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덴마크의 학술적·교육적 위상에 주목한다.⁶³⁾

59) 김광섭 (1935.3.6.).

60) 정인섭 (1940.4.13.) 정말 점묘 상(上), 동아일보.

61) 金保榮 (1933.1.1.).

62) 정인섭 (1940.4.13.) 정말 점묘 상(上). 특히 학술 교육 방면에 있어서 덴마크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에서 “우리는 亞米利加문명을 끄으러 올라 露西亞문명을 끄으러 올라?”라는 질문을 두고, “남의 교육제도를 수입한다면 잘아리 丁扶國民高等學校式을 참고하자”는 답변이 나올 정도였다. 우리들은 亞米利加문명을 끄으러 올라 露西亞문명을 끄으러 올라? (1932.6.15.) 삼천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4차 국제언어학자대회에서 정인섭은 “스칸디나비아 어(語)에 속하는” 덴마크 언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한편, “온후 겸덕(溫厚謙德)한 선비들” 같은 “세계적 언어학자들과 면담(面談)”을 나누었다. 즉 정인섭은 언어학자들과 더불어 “조선어음(朝鮮語音)의 음성부호 문제에 대해 참고(參考)될 만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조선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대한 “몇 가지 논문을 나눠줌”으로써 조선의 독자적 지식을 발신했다.⁶⁴⁾ 이러한 참여를 통해 정인섭은 영어·리투아니아어·중국어·인도어·에스키모어 등으로 구성된 세계언어의 네트워크 속에 한글학자로서의 자신을 위치시켰는데, 국제언어학자대회에서의 학술 경험은 수평적이며 “꽤 진보된 문화”에 입각했던 것으로 그려진다. 이는 “대학의 월사금을 받지 않고” “그다지 큰 부자도 없고 그리 빈곤한 사람도 없으며”⁶⁵⁾ 다양한 정치적 성향들이 공존하는 복지국가 덴마크의 “데모크라시” 덕분인 것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덴마크의 데모크라시와 문단(文壇) 간의 관계를 조명하기 위해, 정인섭은 “베를링그스케 티덴데(Berlrigske Tidende) 신문사”에서 “정말(丁抹) 평론계의 제1인자”로 명명되는 헨닝 켈러(Henning Kehler)와 대담을 진행한다.⁶⁶⁾

켈러씨는 나를 반가히 맞아 주었다. (중략) 그러면서 조금도 서슴지 아니하고 자기의 문학관(文學觀)을 토로한다. 그는 정치(政治)와 문학(文學)이란 것을 전연 분리해서 생각한다고 하며, 사옹(沙翁)⁶⁷⁾이나 괴테가 결코 정치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역설한다. 그리고 문학에 예술적 요소가 완성되지 않으면, 그것은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예술적 완성에 대한 신념은,

63) 정인섭 (1940.4.13.) 정말 점모 상(上).

64) 정인섭 (1940.8.) 정말 시찰기.

65) 정인섭 (1940.4.14.) 정말 점모 하(下), 동아일보.

66) 정인섭은 코펜하겐 대학의 브뤼넬 교수 및 “정말에서 제일 큰 신문사 폴리티켄”의 기자와도 면담을 하며, 조선에 “닐스 북의 곡선미술체조라든지, 안테르센의 동화, 예스페르센 씨의 언어철학 등이 소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주었으며, “청년 기자는 매우 기뻐하면서 기사를 받아냈다.” 정인섭 (1940.8.) 정말 시찰기. 조광.

67) 셰익스피어.

일종의 종교적인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대한 문학은 역시 고통에서 영감(靈感)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정말(丁抹)은 생활이 넉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걱정이 없으므로, 문학 감정이 매우 범속(凡俗)해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말을 빌리면, 『데모크라시』가 문학을 죽이고 있다는 일종의 역설적(逆說的) 경구(警句)를 연발(連發)한다. 나는 구라파의 낙원(樂園)이라고도 말하는 정말(丁抹)에서가 아니면, 들어볼 수 없는 문학관이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미소(微笑)를 했다.⁶⁸⁾

대답 이후 켈러는 덴마크 “현 문단의 문호와 대표작품”을 적어주었는데, 여기에는 “국가주의자인 동시에 귀족주의자인 헨리 폰토피단”, “경향작가인 마림 안데르센”, “진화론자요 인류학자였으며 프로 나치스트였으나 지금은 변해서 데모크라시를 따르는 요하네스 뷔 엔센”, “서정시인-종교적 수필가 헬게 로데” 등 다채로운 창작 경향들이 포함되어 있다.⁶⁹⁾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구라파의 낙원”과 같은 덴마크의 데모크라시는 “정치와 문학을 전연 분리”함으로써 문학자들의 성향을 속박하지 않는 자유로운 문학 활동의 근간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현지 문학자들로 하여금 “예술적 완성”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발틱해와 북해를 건너” 전 세계에까지 고유한 “음향과 진리”를 전파하도록 추동했다. 정인섭은 이처럼 보편화된 세계성을 성취한 덴마크 문학자의 사례로서 안데르센에 주목한다. 즉 정인섭은 독일 그림동화가 “전설적 동화”에 머물렀던 반면 안데르센의 “예술적 창작동화”는 “지상의 아해(兒孩)들 전부를 꿈나라로 이끌 만큼” 보편화·현대화된 문학성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기술한다.

68) 정인섭 (1940.8.) 정말 시찰기. 선행 연구는 정인섭이 “지식인들의 대화 중 드물게 언급한 것이 ‘민주주의가 악’이라는 켈러의 강연과 대화”라고 기술했으나, 원문의 전체 맥락을 살펴볼 때 이는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영국 작가클럽 방문 당시 정인섭이 “예술상의 모랄”에 있어서 “데모크라시가 인류를 구하는 최고(最高) 이상(理想)이란 입장”을 지닌 프랜시스 그립블과의 짧은 대화를 두고 “다분히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논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인섭은 데모크라시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이었다. 정인섭 (1938.5) 영국문단순례. 조광; 차혜영 (2021). 441.

69) 정인섭 (1940.4.14.) 정말 점모 하(下).

내가 일찍이 아동 예술을 좋아하여, 먼저 독일의 그림동화를 읽고 다음에 정말의 안데르센 동화를 읽었다. 내가 『세계동화집』이라는 영문교과서를 만들 때도 『호머 무덤의 장미(薔薇)』라는 영문의 안데르센 동화를 넣었거니와, 나는 독일 그림동화는 구연(口演)에 적합한 전설적(傳說的) 동화이고, 안데르센 동화는 읽기에 좋은 예술적(藝術的) 창작(創作)동화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써 후자에는 훨씬 문학적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안데르센은 작가로서 취급(取扱)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⁷⁰⁾

위 인용문에서 언급되는 『호머 무덤의 장미(薔薇)』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인 “호메로스의 무덤”에 핀 장미꽃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해당 동화는 『일리아스』로 대표되는 신화의 모티프를 활용하는 동시에 『일리아스』를 읽는 현대 “북유럽의 시인”을 등장시키고, 나아가 “아시아 땅”에 위치한 호메로스의 무덤에 참배하러 온 “낮선 유럽 사람 한 무리”를 조명한다. “안개와 오로라의 고향인 북유럽”에서 온 시인은 무덤에 핀 장미꽃을 따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머나먼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이로써 호메로스의 무덤에 핀 장미꽃은 과거와 현재, 아시아와 북유럽을 연결 짓는 문학예술의 보편적 상징이 된다.⁷¹⁾ 이처럼 신화나 전설의 모티프를 현대화하여 창작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경계를 넘어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안데르센 동화의 예술성은 민족 고유의 문화에 “현대적 광채”를 더하여 보편화함으로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경로를 모색했던 정인섭의 학예 순방 취지와 적절히 부합한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정인섭은 “안데르센은 조선(朝鮮) 아이들도 익숙한 이름/그대 동상(銅像)을 보고 나는 유아(幼兒)가 되어/할아버지! 하고 불르고 싶다”는 시구를 남김으로써, 안데르센 동상 앞에서 새롭게 인지한 아동 범주의 보편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조선과도 맞닿은 아동문학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덴마크 문학자에 대해 친밀감을 표명했다.⁷²⁾

70) 정인섭 (1940.8.) 정말 시찰기.

71) Andersen. 호메로스 무덤의 장미. 윤후남 옮김 (2016). 안데르센 동화전집. 서울: 현대지성.202-203.

72) 정인섭 (1940.8.) 정말 시찰기. 위 대목은 정인섭이 담지한 아동문학자로서의 정체성이 드러

정인섭은 위와 유사한 참조 사례를 폴란드에서도 발견한다. 1939년 『조광』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폴란드는 “동포가 서로 총부리를 대이고 피를 흘리고” “고국을 세 개로 찢기어 빼앗기고 고국의 역사도 말도 엄금 당한”⁷³⁾ 결과, 1918년까지 “유럽 지도에서 사라지고 없었던”⁷⁴⁾ 약소민족 국가로서 식민지 말기에 이르기까지 회자되고 있었다. 이러한 폴란드의 표상은 “제국과 벌인 분쟁, 침탈과 독립의 과정”을 드러내는 한편, 자국어어를 통해 “민족적 색채가 농후한” 작품을 창작했다는 측면에서 식민지 조선의 “확연한 동일시의 대상”이 되었다.⁷⁵⁾ 이러한 양국 간의 공통분모는 정인섭이 유럽 강대국에서 겪었던 언어적·문화적 이질감을 넘어, “징쿠예(감사합니다)·미당카스(또 만납시다)” 등의 폴란드어를 창작시에 삽입하는 한편 폴란드 여성 소설가 스텔라 올게르드(Stella Olgierd)와의 대담을 통해 민족문학과 세계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바탕이 되었다.⁷⁶⁾

바르샤바 펜·클럽에서 평론가 센트키위치 및 소설가 올게르드와 대면한

난 부분이다. 정인섭은 이후 아일랜드와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동안에도, 현지 아동들과 교류하며 아동이라는 범주의 보편성을 실감한다. 즉 정인섭은 아일랜드에서 “어느 나라 아동이던지 서로 경쟁하는 심리는 마찬가지로”임을 발견하고, 이탈리아에서 “시골 소녀의 수줍은 것은 동서양이 마찬가지로”임을 기술하며, “그들의 동화세계에 나타난 동방여인(東方旅人)”으로서 “조선 동화나 동요를 하나씩” 들려주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정인섭 (1938.1) 애란문단방문기. 삼천리; 정인섭 (1941.1.) 폼페이외의 감상. 조광.

73) 「波蘭旗下에서 (1939. 11.) 조광.

74) 이민희 (2002). 정인섭(鄭寅燮)이 바라본 폴란드-폴란드 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11, 313.

75) 권채린 (2020). 164-165; 정인섭 (1926.1.6.) 레이몬드 씨의 장서(長逝). 선행 연구는 정인섭이 바르샤바 함락을 앞두고 게재한 기행문을 두고 그가 “폴란드에 다친 위협의 진원지를 소련으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공격자 히틀러와 동일화된 시각을 견지한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해당 기행문에서 정인섭은 “와르쇼”에 다친 위협이 “모스크에서 와르쇼로와르쇼에서 다시 베를린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기술함으로써, 폴란드에게 다친 위협이 소련과 독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와르쇼가 “뒤에는 맹호요 앞엔 단애(斷崖)”의 상황에 처했으며, “나와 속삭이고 웃든 그들, 지금은 어디로 표류(漂流)했을까”를 떠올리며 “오늘 저녁엔 내 붓도 멈추고 창밖 암흑을 바라보다”는 시구를 남겼다는 사실을 참조할 때, 정인섭이 히틀러와 동일화된 시각을 견지했다고 보는 관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정인섭 (1939.11.) 피란문단의 프로필. 조광. 차혜영 (2021). 438.

76) 정인섭 (1938.2.9.) 구미현대작가군(8)·파란이 나온 여류작가 올게르드양과 그의 작품. 동아일보.

정인섭은 폴란드 “현 문단의 대표적 작가와 작품과 중요한 논제와 문학단체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 문단 중진들의 성명부”를 수령하는 한편, 센키에비치·레이몬트 등 폴란드 노벨상 수상 작가들의 조선어 번역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정인섭은 올게르드 양의 창작 현황에 대해 문의하는데, 올게르드 양의 답변을 통해 북동구 민족의 전설이 “전 세계 오피스·걸들을 한가지로 번민하고, 울고, 웃게 할” 현대적 작품으로서 거듭나는 광경을 목격한다.

내가 지금 쓰려는 것은 스트레가라고 할까 합니다. 그것은 늙지 않으려고 하는 한 여인의 비극이라고 부제목을 붙이려고 합니다. (중략) 어떤 미모의 젊은 여사무원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성은 젊어서 이쁠 때는 아무렇거나 직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이 차차 많아지면 직업을 그대로 가지기가 꽤 어려워요. 여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젊고 이쁜 여인들이 뒤에서 자주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남자들과는 달라서 나이를 먹은 여인들은 젊음과 미의 쇠퇴 때문에 실직의 운명에 헤매고 만다. 실직을 당치 않았더라도 여인은 누구나 다 이 불안한 공포심 젊은 미모의 후배들을 볼 때마다 질투와 오뇌가 강해질 것입니다. (중략) 그는 그의 현대 직업여성의 공통 운명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 스트레가라는 젊은 미모의 여사무원은 이런 공포심을 이기지 못해서 더 늙기 전에 대상을 구하던 차 프라그의 젊은 청년을 만나 이태리에까지 사랑의 여행을 하게 되었다. (중략) 프라그의 청년은 자기보다 더 젊고 어여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예측하던 나이 먹은 여인의 쓰라린 운명이 보인다. 그 여인은 참다못해 이태리를 떠나 영국을 갔다. 그런데 영국에 간 스트레가 여사는 어떤 날 신문지 광고를 보고 영원 청춘 불로경소년(不老更少年) 마술인 한두인 『고나르티아타마라』를 찾았다. 사무 보는 서기가 그의 선생이라는 마법사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는 분명히 그 프라그의 청년 그 사람이었다. (중략) 그날 밤 기적적인 이 현실 앞에서 그 여인은 청년 마법사에게 늙지 않는 비법, 즉 다시 젊어지는 비법이 무엇이나를 물었다. 프라그의 청년은 옷을 벗고 잠깐 긴장하더니 곧이어서 깔깔 웃으면서 대답했다. 『웃는 거야! 웃는 거!』 이것이 올게르드 양의 작품구상이었다. (중략) 수백만의 세계 여자 사무원들에게 호소하는 올게르드 양의 심정은 곧 자기 자신을 상미화하는지도 모른다.⁷⁷⁾

정인섭은 올게르드의 이야기를 듣고 “그 구상과 문제의 파악이 천재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호평한다. 이러한 호평은 스트레가(Strzyga)라는 북동구의 마녀 전설을 차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올게르드의 이야기(가⁷⁸), “수백만 세계 여자 사무원들”의 “공통 운명”과 연결됨으로써 “현대 직업여성” 전체를 향한 보편적 호소력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조선 문예가 담지한 민족성의 보편화 및 세계화를 성취하고자 했던 정인섭에게 있어서, 약소 민족의 전설을 현대소설로 재창조하고 유럽과 힌두를 넘나드는 올게르드의 이야기는 조선이 참조할 만한 “파란(波瀾)의 자양(滋養)”으로 인식되었다. 나아가 정인섭은 “여인들이 웃음의 초밀(秒密)을 잊은 지 오래니 (힌두 마법사) 고나르티아타마라를 불러오라!”는 시구를 통해, 동양/서양의 경계를 넘어서는 직업여성들의 네트워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

이처럼 “따뜻한 인정과 다정한 이야기”, “웃음과 명랑한 자태”를 선사해 준 덴마크와 폴란드를 떠날 때, 정인섭은 “화원(花園)이 반드시 넓이를 요(要)하지 않으며, 넓은 황무지보다 역사와 생활과 향기가 있는 작은 뜰이 그림다”고 기술한다. 나아가 정인섭은 덴마크가 “진리에 빛나는 작은 왕국이자 내 마음의 본령(本領)”이며, 폴란드는 올게르드와 함께 섭취했던 “녹색 포도와 더 붙어 내 혈구(血球)”가 되었다고 토로함으로써, “펜과 종이”를 통해 “동방의 나그네”와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유럽 소국들에 대한 감회를 형상화했던 것이다.⁷⁹ 그렇다면 식민지 조선의 문예부흥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던 정인섭의 여행은, 유럽 약소 민족 국가에 이르러 범세계적 예술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보편성의 경로들·아동, 여성-을 발견했던 셈이다.

77) 정인섭 (1938.2.9.) 구미현대작가군(8)·파란이 나온 여류작가 올게르드양과 그의 작품.

78) 정인섭의 방문 당시 올게르드는 단행본 3권을 발간한 소설가였으며, 그의 작품세계는 『Czarownica(witch)』 (1928), 『Znaki(sign)』 (1935)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신비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었다. 참고로 북동구의 전설에 따르면, 스트레가(Strzyga)는 질투가 심한 여성이 마녀로 변한 존재를 가리킨다고 한다. <https://en.wikipedia.org/wiki/Strzyga> 및 Shtriga 항목 참조.

79) 정인섭 (1940.8.) 정말 시찰기; 정인섭 (1938.2.9.) 구미현대작가군(8)·파란이 나온 여류작가 올게르드양과 그의 작품.

3. 전범(典範)의 재정위와 수평적 네트워크

한편 유럽의 또 다른 약소 민족 국가인 아일랜드에서의 세계문학 실천은 동시대적 탐색을 통한 세계화 경로의 ‘발견’으로 귀결되었던 타국 경험과 달리, 고국에서 지면을 통해 형성했던 표상의 ‘확인’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전도(顛倒)된 모색은 식민지 조선에서 아일랜드가 “향토적 독자성”의 보편화를 성취한 “세계적 특수”의 사례로서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으며, “박해와 정의”, “순수와 신비”, “동화(同化) 불가능한 모어(母語) 정신”이라는 특성을 담지한 국가로서 식민지 조선의 담론 장에서 익숙하게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⁸⁰⁾ 가령 『동아일보』의 “건설기의 민족문학” 특집에서 “애란(愛蘭) 문학”은 첫 번째 연재 대상으로 선택되었는데, 해당 기사에서는 애란 문학과 관련하여 “정복자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 “신화전설의 부흥-원시 농민심(農民心)의 탐구 모어(母語)부활 운동”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한 민족의 개성이 다른 민족에게 박해될 때 정복자에 대한 갈등과 반감과 협약은 있어서 안 될 하나의 의리요 하나의 정의로써 애란민족에게 나타났다. (중략) 애란의 문인들은 애란을 살리기 위하여 위선 애란인에게 애란을 사랑하여야 할 것 또는 애란의 본념인 애란의 혼을 문학의 신비로운 힘을 통하여 생명화시키고저하였다. 여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 하나는 애란 고유의 신화전설의 부흥과 다른 하나는 근대문명의 어스러운 혜택을 입지 아니한 순수 애란 농민심의 탐구였다. 신화전설이란 한 민족의 독자적 상상성에서 구체화된 순수한 민족적 정신내용이라 할 수 있다. (중략) 이와 동시에 그들은 애란문학의 모태를 근대문화에 접촉되지 아니한 원시적 농민에게서 획득하였다. (중략) 그러므로 그들은 (중략) 외문화가 침입치 안흔곳으로 다니며 그 민족적 재료를 발견하여서 그들의 문학은 애란 독특한 세계적 특수한 이향이색을 가진다. (중략) 십구세기말부터 일어난 민족적 문예부흥운동의 한 정신은 이 애란어의 부활에 있었다.⁸¹⁾

80) 김광섭 (1935.3.6.-3.7). 건설기(建設期)의 민족문학(民族文學) 애란(愛蘭) 일(一)이(二).

81) 김광섭 (1935.3.6.-3.7). 건설기(建設期)의 민족문학(民族文學) 애란(愛蘭) 일(一)이(二).

식민지 문학 장에서 활용되었던 이러한 아일랜드 표상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로부터 식민화되었다는 사실 및 독립국 건설을 위해 분투해 왔다는 사실 때문에 일본 식민지였던 조선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보는 참조 대상”으로 전유되었다. 이러한 전유는 “탈식민주의적 전략” 차원에서 가동되는 동시에, “근대문화에 접촉되지 아니한 순수 심혼(心魂)”을 모색하고자 하는 “전도된 식민주의적 내셔널리즘”의 근거가 되었다.⁸²⁾

이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정인섭이 지면을 통해 접촉했던 원사순수신비의 아일랜드 표상이 식민지 조선의 “내적 필요”에 대한 강박으로 인해 현지에서의 객관적 관찰을 방해하거나, 정인섭 스스로를 아일랜드라는 ‘민족정신의 전범’을 추수하는 식민적 존재로 위계화할 가능성을 내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인섭은 아일랜드 여행 내내 ‘조선에서 만들어낸 표상’과 ‘현지에서의 실상’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정인섭은 아일랜드를 떠나 영국령 벨파스트에 도착한 이후, 동시대적 대면을 통해 아일랜드를 추수해야 할 ‘민족정신의 전범’이 아니라 세계 분쟁의 한 축으로 인식했을 때, 비로소 원사순수신비의 이미지를 걷어낸 현실 세계의 국가로서 아일랜드와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

정인섭의 여정이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 및 대표 시인인 예이츠(Yeats)와의 대담을 중심에 두고 있음은 명백해 보인다. 실제로 정인섭은 더블린에 도착한 직후, “애란 문예부흥운동의 왕좌”로 명명되는 애비 극장(Abbey Theatre)을 찾아간다. “아이리쉬 르네상스의 종갓집”이자 “예츠, 싱그, 그레고리 부인, 로빈슨 제 문호들이 찬란한 역사를 이루었던” 애비 극장에 이르러, 정인섭은 “화원의 향기에 취하는 한 마리 나비같이 정신이 어절한 것”을 느낀다. 정인섭은 애비 극장을 찾아가자마자 “예츠 씨를 비롯한 여러 문인예술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할지”를 떠올리는데, 이는 그가 조선 문단으로부터 문예부흥을 위한 “蜜의 흡수”라는 방문 목적을 달성할 것을 요청받았기 때문이다.

82) 이승희 (2005). 조선문학의 내셔널리티와 아일랜드. 민족문학사연구, 28, 70-72.

이후 정인섭은 식민지 조선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다. 즉 그는 애비 극장 여사무원을 통해 “참고자료”를 구하고, “신문 장수에게서 산 잡지 『지도자』”를 통해 아일랜드 문단 사정을 조사하는 한편, “장차 출판 할 조선현대시인 자선대표작 영역 선집”에 시인 받을 준비를 함으로써 예이츠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세계의 영양”을 섭취하고자 했다.⁸³⁾

그런데 예이츠를 만나기에 앞서 시도한 예이츠 양과의 대담은, 정인섭이 담지했던 아일랜드의 신비적 표상을 재정위하는 계기가 된다.

『예즈』嬢은 그 때 마춤 그 극장에 와 있으니 의향이 있으면 만나보라고 한다. (중략) 나의 환상은 무척 화려하게 미끄럼질을 치고 있었다. 일세의 거장 『예즈』 씨의 영양(令嬢)! 그에게 고귀와 찬란과 영화를 그리고 있었다. 향기로운 가인의 자태… 나는 『예즈』 氏의 신비로운 예술경에서 『예즈』 嬢의 긴 치맛자락을 연상하고 이상한 감격으로 기다리고 있다.

조금 있으니 여사원이 한 젊은 19세가량 되어 보이는 노동자를 뒤에 데리고 온다. 그리고 『예즈』 嬢이라고 소개한다. 나는 놀랐다. (중략) 왜? 나는 나의 여러 가지 긴장했던 상상과는 정반대의 인물, 아니 나의 기대라는 것이 너무나 浮華하고 엉터리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眼前에 나타난 『위대한 진리의 현실적 화신?』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나 위에는 내복 하나만 입고 여인이 청색의 남자 직공복을 양 어깨에 걸바를 걸치고 그리고 바지에는 여러 가지 색의 『펑키』가 묻어서 이제 막 무슨 작업을 하다가 온 모양 같다. 더구나 그의 얼굴 모습과 자태가 나의 인식 착오를 여지없이 공격하는 듯한 꾸지람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았다. (중략)

『嬢께서는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서 무대장치를 배우고 있어요』

그는 미소를 띠면서 분명한 어조로 답을 했다. 나는 비로소 나의 의문이 풀리기 시작한 것을 느끼자, 곧 이어서 嬢의 결심이 비범한 것을 감탄했다.⁸⁴⁾

위 인용문에서 정인섭이 느낀 놀라움은, 식민지 조선에서 형성했던 표상

83) 정인섭 (1938.1) 애란문단방문기.

84) 정인섭 (1938.1) 애란문단방문기.

과 현지 실상 간의 간극을 생생히 체감했기 때문이다. “원시 농민심(農民心)”을 통해 아일랜드의 본질을 포착하고자 했던 ‘건설기의 민족문화’과 마찬가지로 정인섭은 “가난한 백성들이 사는 애란의 풍토”를 보고 “감격”을 느꼈으며, “산골의 순박한 처녀”와 같은 더블린의 웨이트리스를 “애란 여인의 전형”으로 명명했다. 한편 정인섭은 에이츠 양과의 만남을 앞두고 에이츠의 시에 등장하는 “모리엔 여신(女神)”⁸⁵⁾과 같은 “향기로운 가인의 자태”를 상상했으나, 눈앞에 등장한 것은 직공복을 입은 현대 노동자 여성이었다. 즉 조선에서 지면을 통해 상상했던 “근대문화에 접촉되지 아니한 순수 심혼(心魂)”이나 신화전설의 “고귀와 찬란”은 동시대 아일랜드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민족정신의 전범으로서의 “위대한 진리”는 페인트 칠이 묻은 채 조선인의 “인식착오”를 공격하는 “현실적 화산”으로 조정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식민지 조선의 표상과 현지 실상 간의 간극은, 정인섭이 시인 에이츠와 나누는 대담에서도 드러난다. 정인섭은 에이츠에게 모여 창작 및 정형시의 미래에 대해 질문하지만 대화 내용은 정인섭이 “더블린에 와서 조사한 바”를 넘어서지 않으며, 정인섭은 에이츠로부터 약소 민족의 문예부흥을 위한 비밀을 전수받는다기보다는 스스로의 역량에 입각하여 수집·연구했던 현지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에 가깝다. 대담을 마치고 사인을 받은 후, 정인섭은 “신비로운 마술적 시선”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는 에이츠를 두고 “이디지 성스런 감격의 작별은 다시 없으리라”고 위계화된 감회를 토로하지만, “아직도 그 노구(老耇)에서 영광이 흐르고 문전의 이국(異國) 걸인(乞人)을 어루만지며 기적을 이루었다”고 회고되는 “성자 에이츠 선생”은 사실 몇 마디 하지 않는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 말이 있는데 위선 장차 여러분들의 창작용어를 어찌하시렵니까?』 (중략)

『영어밖에 모르니 그것으로 쓰는 것이죠』

『요사이 게릭으로 창작하는 분이라던지 또는 게릭어의 부흥 운동이 굉장

85) 김광섭 (1935.3.6.-3.7). 건설기(建設期)의 민족문화(民族問學) 애란(愛蘭) 일(一)이(二).

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영어를 배척할 필요는 없겠죠. 영어를 통해서도 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깐요. (중략)』

나는 이렇게 답하는 그의 심경을 더 추구(推究)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중략) 나는 아침에 『오코넬교』에서 신문장수에게서 산 잡지 『지도자』 속에서 읽은 글이 문득 연상되었다. (중략)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띈 글은 『영어에 대한 선입견』이란 단평이었다. 『사스필드』란 사람의 글인데 내용은 게릭어 부흥장려의 사실을 긍정하고는 그다음에 가서 그렇다고 해서 『잉그리쉬』의 근절을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하는 반박문이었다. (중략) 현재 중년 이상 시민들에게는 그들이 영어밖에 모르니 이제 새삼스럽게 소화 아동들같이 게릭을 가르쳐 가지고 하자는 정력 소모를 피하고 게릭 전설, 민요, 기타 문학을 영어로 譯해가지고 교화재료로 하자는 것이었다. (중략)

『다음에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형시의 장래라는 것이올시다. 즉 운율학의 법칙이 장차 어떠한 정도로 적용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꽤 어려운 질문이올시다 그러!』

『그러면 문제를 더 적게 해서, 영시에 있어서 리임(尾韻)의 운명은 여하? 올시다』

『네 알겠습니다. 억지로 고집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어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⁸⁶⁾

한편 “성자 예이츠 선생” 앞에서 “이국 걸인”의 신분으로 위계화되었던 정인섭의 위치성이 재조정되는 것은, 현대 노동자 여성인 예이츠 양이나 “켈틱 청년 닭장수”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다. 즉 정인섭은 예이츠 양과 대화를 나누는 이후 “뽕키칠하는 젊은 女人 하나가 스카-트를 찌저바렸”듯이 “조선의 女人들도 청색 직공 바지를 입을 것”을 권유함으로써, 조선과 아일랜드 여성들을 노동자라는 보편적 범주를 통해 수평적으로 연계시킨다. 아울러 정인섭은 영국령 벨파스트에서 청년 닭장수와 대화를 통해 “남방 정부를 극히 미워하는” “북방 정권 측 심경과 처지를 이해”하는 한편, 애란의 민속놀이인 “닭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경청한다. 해당 대화는 “어렸을 때 고향

86) 정인섭 (1938.1) 애란문단방문기.

서 닭싸움 따라다니면서 구경을 했다”는 정인섭 자신의 기억과 연동되며, 이 지점에서 뜻밖에도 “종적 국민 요소와 횡적 세계 요소”⁸⁷⁾ 간의 교차가 이루어진다. 즉 닭싸움이라는 조선과 아일랜드의 공통된 민속적 요소는 “아일랜드 남북 정권 간의 알력”이라는 세계정세와 교차되며, 이후 강대국들 사이에 놓인 채 “처음에는 형제이건만/큰 닭들의 싸우는 버릇을 배워/이욕, 명예, 지위”를 다투는 “병아리”와 같은 약소 민족의 보편적 처지를 형용하는 창작시로 나타나는 것이다.⁸⁸⁾ 그렇다면 아일랜드 여행을 통해 조선의 “약룡(藥籠)”에 거두어야 할 “영양”이란, 추수해야 할 것으로 상상되었던 서구의 전범을 넘어, 식민지 조선이 세계 여러 민족들과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보편성들이동, 여성, 노동자, 약소 민족 등을 사유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했다는 ‘사실의 인지’ 자체일 것이다.

4. 문예/정치의 간극과 파시즘 이후의 세계문학

지금까지 1930년대 정인섭의 유럽 여행을 토대로 발표된 기행문·해외문학 평론에 나타난 현지 문인들과의 대담에 초점을 맞추어, 정인섭이 한글이나 조선 전설, 민속 등 “향토적 독자성”의 보편화를 위해 어떠한 세계문학 실천들을 선보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유럽은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의 표상권에 본격적으로 기입”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덴마크·폴란드·아일랜드 등 주변부에 위치한 약소 민족 국가들의 “고유한 자질과 모범적 선례”가 주목되었다. 또한 식민지 조선에서는 “민족의 존립과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 이들과의 “수평적 교섭”이나 “횡단적 연대”가 시도되기도 했다.⁸⁹⁾ 이 글에서는 조선의 문예부흥을 위해 문화적 “양분”을 섭취하고자 했던 식민지 문학자가, 덴마크·폴란드·

87) 정인섭 (1959). 25-45.

88) 정인섭 (1938.10.) 愛蘭紀行, 太西洋 건너 故鄕으로 삼천리.

89) 권채린 (2020). 179-180.

아일랜드라는 유럽 주변부 소국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아동·여성·노동자·약소 민족 등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보편성의 경로들을 발견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1920-30년대 정인섭 및 해외문학파가 번역이라는 ‘지면 위의 교류’를 매개로 세계문학(Weltliteratur)의 개념에 도달하고자 했다면, 1936년 정인섭의 유럽 여행은 “문화 간 교류라는 활동상”⁹⁰⁾에 입각하여 문인 대담이라는 동시대적 실천을 수행함으로써, 조선의 독자적 문예를 보편화된 현대성으로 쇄신하여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학술적 실효성을 획득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⁹¹⁾

한편 “현재의 정치형태와 무관한 곳에서 문화적 부흥을 시도하고자” 했던 식민지 해외문학자의 교통(交通) 실천은⁹²⁾, 식민지 말기에 이르러 문예/정치 간의 간극을 노출시킨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유럽 제국주의·전체주의 국가들을 여행하며 파시즘적 호전성의 억제가 어려울 것임을 현실적으로 인지했던 정인섭은, 동양/서양의 구획에 입각한 대동아공영권의 이항대립적 질서 내부로 귀환한 이후 정치적 판단/문화적 지향 사이에서 양가적 태도를 선보인다. 가령 정인섭은 1939년-1942년 조선문인협회 발기인 간사를 역임하며 전선 위문대 파견, 지원병 훈련소 1일 입소 등을 선보임으로써 대동아의 “전체적이며 조직적인 신질서”에 정치적으로 동참하는 한편⁹³⁾, “신체제에 적응한 생활 태도를 취하여 지역봉공의 미담을 묘사할 것”을 결의하고 “영국문화가 보여주는 개인주의적이요 자유주의적인 것”에 대한 비판을 선보인 바 있다.⁹⁴⁾ 이와 동시에 정인섭은 “정치가 군인과 구분되는 문학자 예술가의 태도”

90) 조재룡 (2012). 516-518.

91) 이처럼 세계 각국의 문학을 “직접 만난다는 의식”에 입각하여, 문화외교를 통해 세계문학을 구현하고자 했던 정인섭의 실천은 1950년대 한국 펜클럽의 회장으로서는 국제 교류를 전개할 때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연희 (2016). 1950년대 한국 펜클럽과 아시아재단의 문화원조—세계작가회의 참가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0호, 129-133 참조.

92) 이현구 (1934.11). 세계문화의 정신 탐조, 일의 서론적 수기. 이처럼 정치와는 별개로, 동서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예술의 연속성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1950년대 정인섭의 비교문학론 및 한국 펜클럽의 국제 교류에서도 지속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인섭 (1959). 220-230 참조.

93) 정인섭 (1942.3.2.). 영국문화의 위기. 매일신보.

를 강조하고 “세계 평화, 인류 행복”과 더불어 조선의 독자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문화적 지향성을 견지했으며⁹⁵⁾, 이윤재·최현배·이희승과 더불어 한글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기소되어 함경남도 흥원 감옥에 9개월간 투옥된 바 있는 것이다.⁹⁶⁾

식민지 말기 정인섭의 평론은 이러한 양가적 태도로 인해 정치적 판단의 명확성으로부터 미끄러져, 과거에 형성했던 세계문화 네트워크 속으로 (잘못) 진입하기도 한다. 가령 동양의 전쟁문화에 대한 정인섭의 논의는 구주 동란(動亂)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영국·독일·프랑스·폴란드의 문화유산이 지닌 영속적 가치를 경유한 후, 전쟁 종결 이후 전개될 “인도주의적(人道主義的) 문학”의 보편적 전망으로 옮겨간다.⁹⁷⁾ 한편 1940년에 발표된 「芬蘭의文學」에서 정인섭은 파시즘 치하 독일과 조약을 맺은 “동양인계 족속”의 미래를 염려하고⁹⁸⁾, 1941년에 발표된 「광한루와 춘향각」에서는 서양으로 향하던 발길을 대동아공영권이 표방하는 동양의 탐구로 되돌린다. 그러나 핀란드에 대한 염려는 “서양 문화를 배우기가 썩 어려웠던 동양 혈족의 알파벳”에 대한 학술적 설명으로 전환되고, 광한루에 대한 탐구는 (영국의 셰익스피어를 경유한) 조선 민속이라는 “향토적 독자성”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영국의 문호 쉘스피어 생가에 가면 그가 앉았다는 의자가 있는데 나도 거기 한번 앉아보니 기분이 썩 좋았다. 그런데 여기에 추천(靴鞮)을 맨들어 두고 봄 춘향제 때나 全鮮女子靴鞮競技大會를 개최했으면 썩 좋겠다. 더구나 추천은 조선에 제일 발달된 민중오락이요 건전한 체육도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 노리가 세계적 명물로 될만한 것이다. 조선여인의 긴 치마 라던지 속옷의 조직이 추천에는 적합한 것일 뿐 아니라 저고리와 치마의

94) 정인섭 (1941.1.1). 신체제 하의 여(余)의 문학 활동 방침. 삼천리 제13권 제호; 정인섭 (1942.3.2). 영국문화의 위기.

95) 정인섭 (1939.11-12.). 動亂의 歐州를 생각함. 문장.

96) 김옥동 (2020). 185-190, 199-205.

97) 정인섭 (1939.11-12.). 動亂의 歐州를 생각함.

98) 정인섭 (1940.2.) 芬蘭의文學 조광.

진 웃고름이 나누끼는 모양이란 참으로 세계 제일일 것이다.⁹⁹⁾

요컨대 식민지 말기 평론에서 정인섭은 동양/서양이라는 정치적 분할선에 국한되지 않는 세계를 문화적 지향점으로 견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예/정치 간 간극은 1940년 전후로 발표된 정인섭의 창작시를 통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1940년 정인섭은 나치스 군대의 파리 점령이라는 ‘승전’을 목격하고 다음과 같은 시구들을 남긴다. “베르사이유 궁전이 위급하든 날/카이젤’의 수염은 미소했으련만/제네바의 活舞臺를 부셔트리고/히틀러는 안바리드를 참배한다.” 그러나 “大戰의 소음을 삼키는 바리”는 “河床에 『미로』의 『비너스』를 감추고” 있으며, “문명의 花叢” 파리에서 “예술은 바리人的 신앙이 된다”는 것이다. 안데르센의 동화를 통해 떠올렸던, 동서양을 연결 짓는 문학예술의 보편성은 식민지 말기에 이르러 “미라처럼 바짝 마른 채 책 속에 잠들 수밖에” 없었지만¹⁰⁰⁾, 문예/정치 간 간극에 입각함으로써 정인섭은 “서울 지붕 밑에서 파리에서 부는 나팔 소리”를 듣거나, “몬마르트 유흥가에는/여전히 밤 모르는 청춘이 있어” 독일과 이탈리아 점령군의 “정조대를 비웃을 것”임을 상상할 수 있다.¹⁰¹⁾ 나아가 소련과 독일의 침공 당시 “창마다 연기가 터지는”

99) 정인섭 (1941.3.1.) 광한루(廣寒樓)와 춘향각(春香閣). 삼천리.

100) 안데르센 (2016). 호메로스 무덤의 장미. 선행 연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식민지 말기 동서양 문학예술의 보편성은 당대 식민지/제국의 표상 체계 내에서 발화되지 못한 채 언더그라운드로 가라앉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승기 (2019). 삭제된 목소리가 말하는 방식-정우상의 「목소리[聲]」 (1935)를 통해. 인문과학, 117호, 21.

101) 정인섭 (1940.5) 몽파리. 파리의 추억. 조광; 정인섭 (1940.10) 몽파리. 바리 『奈巴倫墓』 參拜記 凱旋門을 지나 偉人的 무덤을 찾다. 삼천리. 1940년 5월에 게재된 원문의 해당 구절은 “『몬마르트』 유흥가에는/여전히 밤 모르는 청춘이 있어/『크뤼니 박물관』의 眞操帶를 비웃고 있다”이다. “크뤼니 박물관”은 파리에 위치한 ‘클뤼니 박물관(Musée de Cluny)’이며, 클뤼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정조대이다. 정인섭은 파리 여행 당시 클뤼니 박물관에 들러 해당 정조대가 “17세기 초에 이태리나 독일에서 맨들어진 것”이며 “이것이 불란서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점령군의 정조대를 비웃는 해당 시를 창작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크뤼니 박물관’이 ‘큐리니클 박물관’으로 잘못 표기되었고, 창작시 <몽파리>의 인용문이 창작시 <파리의 밤>과 혼용되어 시 제목 또한 <파리의 밤>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파리의 거리의 여인들이 독일병대를 보고 미소를 띠우며 서투른 독일어를 속삭인다”

폴란드를 염려해 “나와 속삭이고 웃든 그들, 지금은 어디로 표류했을가”를 질문하며¹⁰²⁾ 개별 여정을 통해 형성했던 주변부의 세계문학 네트워크를 회상하던 정인섭의 면모는, 현재의 정치형태에 대한 참여와 더불어 스스로의 문화적 지향성을 보존하기 위해 식민지 해외문학자가 취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방식을 가시화한다.

【주제어】 여행기, 유럽, 해외문학파, 외국문학연구회, 문인 대담, 그랜드 투어

는 기행문의 구절을 두고 “독일은 술·마약·쾌락에 찌든 파리병을 치유할 자로, 쾌락에 취한 프랑스인들은 독일 군인들에게 몸 팔고 돈을 구걸하는 파리 여인들로 표현된다”는 이분법적 도식으로 분석했으나, 해당 기행문의 첫머리에 “무장한 독일병사들이 산재리제를 행진 하는데 어떤 파리여성들은 달려들어 울면서 독일병사들을 물어뜯고 아단쳤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차혜영 (2021). 446-448.

102) 정인섭 (1939.11.) 파란 문단의 프로필.

[참고문헌]

- 건설기(建設期)의 민족문학(民族文學) (1935.1.3.-3.23.) 동아일보.
- 곽승미 (2006). 세계의 위계화와 식민지주민의 자기응시. 한국문화연구, 11권.
- 권보드래 (2005). 식민지 지식인의 민족과 인류. 정신문화연구, 제 28권 3호.
- 권채린 (2020). 식민지 대중잡지의 공공성과 ‘조선-구주’의 횡단적 정치학. 우리문화연구, 66호.
- 김광섭 (1935.3.6.-3.7). 건설기(建設期)의 민족문학(民族文學) 애란(愛蘭) 일(一)이(二). 동아일보.
- 金保榮 (1933.1.1.) 丁抹의 國民體育. 삼천리, 제5권 제1호.
- 김진섭 (1935.4.17.) 번역과 문화. 조선중앙일보.
- 김옥동 (2020). 눈술 정인섭 평전. 울산: UNIST.
- 김연수 (2011). 조선의 번역운동과 괴테의 ‘세계문학’ 개념 수용에 대한 고찰. 괴테연구, 24호.
- 김향 (2015). 제국 일본의 사상. 서울: 창비.
- 김현주 (2015). 사회의 발견. 서울: 소명출판.
- 박승희 (2008). 근대 초기 매체의 세계 인식과 문학사. 한민족어문학, 제53호.
- 박연희 (2016). 1950년대 한국 펜클럽과 아시아재단의 문화원조—세계작가회의의 참관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0호.
- 류준필 (2005). 1910-20년대 초 자국학 이념의 형성과정. 대동문화연구, 제52호.
- 손유경 (2008). 나혜석의 구미 만유기에 나타난 여성 산책자의 시선과 지리적 상상력. 민족문학사연구, 36호.
- 宋江 (1935.4.20.) 문예시평(文藝時評) 其二, 해외문화파에 대한 수언(數言) 하(下), 동아일보.
- 서은주 (2004). 번역과 문학 장의 내셔널리티. 현대문학의 연구, 24호.
- 서은주 (2005). 1930년대 외국문학 수용의 좌표. 민족문학사연구, 28호.
- 설혜심 (2010). 그랜드 투어(Grand Tour) vs 매스 투어리즘(Mass Tourism)? 대구사학, 99호.
- 설혜심 (2020). 그랜드 투어. 휴머니스트.
- 성현경 (2010). 1930년대 해외 기행문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 성현경 (2012). 1930년대 세계문학담론의 수행적 구조와 해외문학기행의 정치성. 구보학보, 8집.
- 延專 鄭敦受 (1936.8.6.) 동아일보.
- 尹鼓鍾 (1934. 2.8.), 문학유산문제와 해외문화파의 임무 하(下). 동아일보.
- 이승희 (2005). 조선문학의 내셔널리티와 아일랜드. 민족문학사연구, 28호.

- 이태훈(2003). 1920년대 전반기 일제의 ‘문화정치론’과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대응. 역사와 현실, 47집.
- 이현구(1934.11). 세계문학의 정신 탐조, 일의 서론적 수기. 개벽, 신간 1호.
- 임경순(2012). 한국 근대 해외 기행 문학의 양상과 의미. 국어교육, 137호.
- 조다희(2012). 해외문화파의 번역극 운동과 번역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대학원 비교문학비교문화협동과정.
- 조윤정(2009). 번역가의 과제, 글쓰기의 윤리. 반교어문연구, 27호.
- 조재룡(2012). 鄭寅燮과 번역의 활동성. 민족문화연구, 57호.
- 정인섭(1938.1) 애란문단방문기. 삼천리.
- 정인섭(1938.1.4). 북중구(北中區)의 문예계(文藝界) 상(上). 동아일보.
- 정인섭(1938.1.8). 북중구(北中區)의 문예계(文藝界) 하(下). 동아일보.
- 정인섭(1938.5) 영국문단순례기. 조광.
- 정인섭(1939.8.) 백림기(白林記). 조광.
- 정인섭(1938.10.) 愛蘭紀行, 太西洋 건너 故鄕으로 삼천리.
- 정인섭(1939.11.) 파란 문단의 프로필. 조광.
- 정인섭(1939.11-12.). 動亂의 歐洲를 생각함. 문장.
- 정인섭(1940.1.9.) 전란외중 구미문단(4) 남구(南區)편 삼(三) 전란(戰亂)과 문학(文學)의 장래. 동아일보.
- 정인섭(1940.2.) 芬蘭의 文學. 조광.
- 정인섭(1940.4.13.) 정말 점묘 상(上). 동아일보.
- 정인섭(1940.4.14.) 정말 점묘 하(下). 동아일보.
- 정인섭(1940.4.) 파리의 추억 이(二). 조광.
- 정인섭(1940.5.) 파리의 추억 삼(三). 조광.
- 정인섭(1940.5.) 『괴테』와 『실레르』 전문. 와이마르 기행 『괴테』의 집을 찾아서. 문장.
- 정인섭(1940.8.) 정말 시찰기. 조광.
- 정인섭(1940.10) 바리 『奈巴倫墓』 參拜記 凱旋門을 지나偉人の 무덤을 찾다. 삼천리.
- 정인섭(1940.11.) 이태리방문기. 조광.
- 정인섭(1940.12.) 라마(羅馬)의 인상. 조광.
- 정인섭(1941.1.) 폼페이감상. 조광.
- 정인섭(1941.1.1.) 신체제 하의 여(余)의 문학 활동 방침. 삼천리.
- 정인섭(1941.3.1.) 광한루(廣寒樓)와 춘향각(春香閣). 삼천리.
- 정인섭(1942.3.2.). 영국문화의 위기. 매일신보.
- 정인섭(1959). 한국문단논고. 서울: 신흥출판사.

- 정인섭 (1960). 세계문학산고(世界文學散考). 서울: 동국문화사.
- 차승기 (2019). 삭제된 목소리가 말하는 방식-정우상의 「목소리[聲]」(1935)를 통해. 인문과학, 117호
- 차혜영 (2015). 대공황 이후 블록경제하의 유럽여행과 서구 시조의 변경, 1936년 정인섭의 유럽여행체험에 대하여. 비교한국학, 23권 3호
- 차혜영 (2021). 전범국가 연대의 지정학, 히틀러 시대 정인섭의 유럽 여행기. 현대소설연구, 84호
- 「波蘭旗下에서 (1939. 11.) 조광.
- 하신애 (2018). 아시아 트러블. 서울: 엘피.
- 하신애 (2019). 제국의 국민, 유럽의 난민-식민지 말기 해외 지식인들의 귀환 담론과 아시아 /세계 인식의 불화. 한국현대문학연구, 58호
- 해외문학 좌담회-한글 사용에 대한 외국문학 견지의 고찰 (1927.7.1). 해외문학, 2호
- 玄民 (1933.10.5.) 문단시평(文壇時評) 해외문학파의 재출발 삼(三). 동아일보.
- Andersen. 윤후남 옮김 (2016). 안데르센 동화전집. 서울: 현대지성.
- 松尾尊兌 (2001). 大正デモクラシー. 오석철 옮김 (2011). 다이쇼 데모크라시. 서울: 소명출판.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1930년대 정인섭의 유럽 여행을 토대로 발표된 기행문·해외문학 평론을 분석했다. 유럽은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의 표상권에 본격적으로 기입”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덴마크·폴란드·아일랜드 등 주변부에 위치한 약소 민족 국가들의 “고유한 자질과 모범적 선례”가 주목되었다. 이 글에서는 조선의 문예부흥을 위해 문화적 “양분”을 섭취하고자 했던 식민지 문학자가, 덴마크 평론가 헨닝 켈러(Henning Kehler)·폴란드 여성 소설가 스텔라 올게르드(Stella Olgierd)·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와 대담을 진행하고, 유럽 주변부 소국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이동·여성·노동자·약소 민족 등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보편성의 경로들을 발견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1920-30년대 정인섭 및 해외문학파가 번역이라는 ‘지면 위의 교류’를 매개로 세계문학(Weltliteratur)의 개념에 도달하고자 했다면, 1936년 정인섭의 유럽 여행은 대담이라는 동시대적 실천을 수행함으로써, 한글이나 전설, 민속 등 조선의 문예를 보편화된 현대성으로 쇄신하여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학술적 실효성을 획득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정인섭의 기행문 및 평론은 1930년대 세계문학 실천과 1940년대 정치적 맥락 간 교차에 입각하여 꺾점의 충위를 선보였다. 선행 연구가 식민지 말기라는 작성 연대에 주목하여 유흥·소비·정치 등 특정 시기의 맥락을 부각시켰다면, 이 글에서는 정인섭이 1936년 유럽 여행 당시 표출했던 학술적·교육적 목적성 및 세계 인식이라는 충위를 새롭게 발굴함으로써, 식민지가 축적했던 개별적 역량이나 역동성을 부각시키고 정인섭의 여행 텍스트에 접근하기 위한 경로들을 다채롭게 포착했다.

[Abstract]

Litterateur of the Eastern and Western Peripherals and World Literature Network

- Focusing on Jeong In-seop's Travelogues and Reviews on
Denmark, Poland, and Ireland during the Colonial Period

Ha, Shinae (Yonsei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s the conversations with local writers written in Jeon In-seop's travelogues and overseas literature reviews based on his travel to Europe in the 1930s. His "literary tour" in Europe was conducted to revive Joseon's literature stuck in the political wasteland by taking a comprehensive look at foreign culture. He proactively tried to ingest the cultural "nutrients" of Denmark, Poland, and Ireland, which are not imperialist nor totalitarian states but peripheral or weak nation-states. This research traced the network among peripheral literature writers through the dialogue between Jeong In-seop and other litterateurs, including Danish critic Henning Kehler, Polish female novelist Stella Olgierd, and Irish poet William Butler Yeats. On the other hand, it also analyzed the process he discovered the path of universality toward the world, such as children, women, workers, and underprivileged people. In addition, his travel journey and reviews show a stratified layer based on the intersection between the world literature practice in the 1930s and the political context of the 1940s. While the previous research focused on the 'record date' - the end of the colony - to highlight the political context of the time, this study unearthed the layers of scholarly and educational purpose and recognition of being a part of the world Jeong In-seop expressed when traveling Europe by focusing on 1936 - or the 'prosecution date' - capturing the various ways to access travel texts he wrote.

[Keywords] travelogue, Europe, overseas literature group, foreign literature
research association, litterateur's dialogue, grand tour

논문투고일: 2022년 7월 13일 / 논문심사일: 2022년 8월 14일 /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23일

【저자연락처】 shaderiver@naver.com